

성령의 해방 아버지, 1백여년 망국 조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로 저희 한 인들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감사하며 전하게 선포사 파송 주로 새왕국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종인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9호 2011년 11월 1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주한인교회 4,194 주별 1위 CA

2위 뉴욕, 3위 뉴저지... 조지아 늘고 메릴랜드 감소

미국내 한인교회 수가 총 4,19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3개가 늘어난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5개국의 한인교회는 1,295개로 전년도에 비해 38개 교회가 추가됐다.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한인교회주소록에 따르면 2011년 11월 현재 미국내 한인교회 중 주별 1위는 예년과 동일하게 캘리포니아로 1,280교회가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84교회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새로 등록된 교회는 166교회, 없어진 교회도 82개나 된다.

2위는 역시 뉴욕으로 452교회가 집계됐으며 전년에 비해 10개 교회가 증가했는데 새로 등록된 교회가 23, 없어진 교회가 13교회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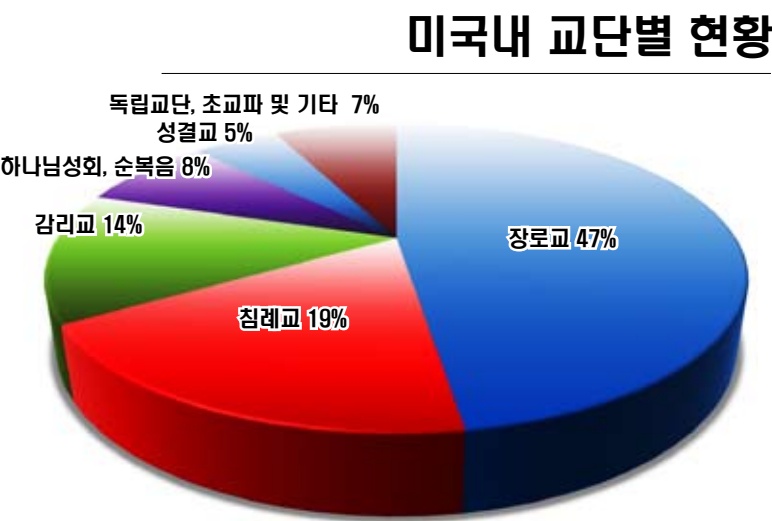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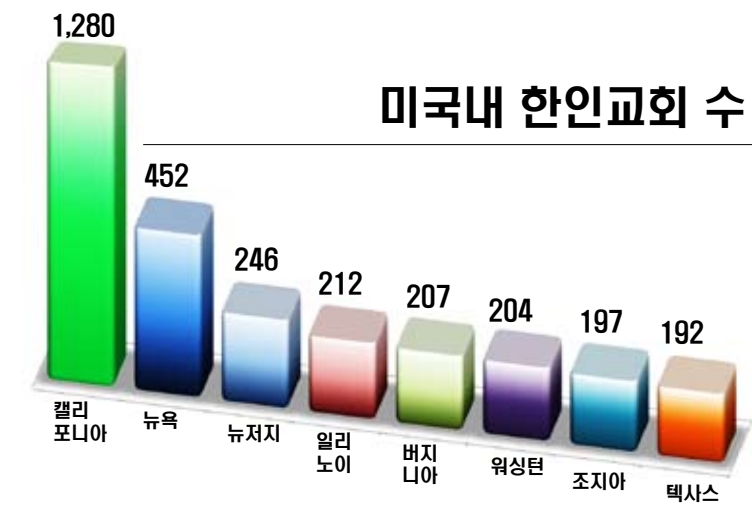
3위는 뉴저지로 지난해 3위 버지니아를 제쳤다. 총 246개 교회로 지난해에 비해 4교회가 늘어났지만 새로 등록된 교회가 6, 없어진 교회가 2교회이다.

4위는 일리노이 주로 212개 교회로 새로 등록된 교회가 12개 교회나 됐다. 5위는 버지니아(207, +5), 6위는 워싱턴 주(204, +9, -2)로 나타났다.

이외에 조지아 197교회, 텍사스 192교회로 나타났다. 또 1개 교회가 있는 곳은 노스다코타가 유일하다. 이로써 미국내 50개 주에 모두 한인교회가 존재하며 워싱턴DC에 2, 괘에도 9교회가 있다.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곳은 역시 캘리포니아이며 2위는 조지아로 전년도에 이어 26개 교회가 새로 등록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3위는 뉴욕이며 아리조나는 13개 교회가 새로 등록돼 한인인구 유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일리노이와 텍사스도 각각 12, 11 교회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아칸소는 새로 등록된 교회는 없는데 3교회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는 11교회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디애나와 메사추세츠 등은 새로 등록된 교



회보다 없어진 교회가 약간 많게 나타났다.

이로써 미전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인교회는 342개가 새로 등록됐고 159개 교회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개 이상의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주로 나타났다.

미주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한인교회는 75개국에 총 1,295교회가 리스팅 됐다.

전년도에 비해 38교회가 추가된 해외교회 1위는 캐나다로 393교회 (+18), 2위는 일본(205, -1), 3위는

호주(173, +1), 4위 독일(98, -1), 5위는 아르헨티나(57)가 차지해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다. 영국은 전년도 7위에서 다시 6위(54)로, 브라질(47)을 앞섰다.

이외에 뉴질랜드 35교회, 멕시

코 21, 파라과이 20으로 나타났으며 1개교회가 있는 곳도 32개국이나 됐다.

미국내 교단 별로 보면 장로교(개혁교단 포함)가 1,771교회로 약 47%를 차지했으며 19%를 차지한 침례교(694)가 2위, 3위는 감리교 511교회(14%), 4위는 하나님의성회 및 순복음 계열이 288교회(8%)로 집계됐으며 나사렛 성결교단이 187교회(5%)로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독립교단 195, 초교파 75교회, 또 교단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무속도 다수 있었다.

장로교 중 미주내 가장 큰 교단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로 463교회(+4), 2위는 미국교단인 PCUSA 334(+5)교회, 3위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262(+2)교회로 그 뒤를 이었다.

4위는 미국교단인 PCA가 180(+4)교회로 나타났다. 장로교 계열의 개혁주의 교단인 CRC와 RCA도 89(-9)교회와 41(+3)교회로 각각 집계됐다.

'2012 세계한인주소록'에는 이외에 기독교기관, 기독교연론, 선교회, 신학교 그리고 기도원 및 수양관 등의 리스트와 함께 교회 웹사이트 주소도 첨부했다.

이번 주소록에는 총 6,055개의 리스트를 실었으며 교회는 총 5,501, 기도원 44, 신학교 101, 선교기관 134(선교사 43), 언론 28, 단체 30, 서점 14 등이 수록됐으며 올해는 해외공관 155개가 추가됐다.

올 10월말 작업을 완료한 '2012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은 내년 1월부터 미주 전역과 한국에서 무료 배부된다.

(유원정 기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하원 공식모토 압도적 재천명!

크리스천포스트, 396대9... “미 전국정신 기리는 국시 재확인” 보도

미국을 세운 건국자들에게 미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정교도인들의 삶의 기본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도, 지폐에 들어가는 문자의 우선순위도 살아계신 하나님(GOD)이 명시돼 있다. 이른바 “국시”인 이 모토가 달리에 새겨진 것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독립국가로서 화폐를 발행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규정중 하나이다.

그리고 냉전초기인 1956년 미국의 모토로 공식 채택된 이 모토는 종교적 색채가 강해 국가 공식 모토로 적당하기에 대한 논란이 종종 제기됐지만 '하나님이 세속적이고 의례적 의미로 쓰였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식 모토로 자리를 잡았다. 이 문구는 미국의 모든 지폐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과 학교에도 새겨진 곳이 많다.

한편, 지속되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미 국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이제 극한까지 와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로 발전돼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행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경기 부양책 같은 지역적인 정책들로 분노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달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반면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 시점에서 미국인들의 정신적 유대감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이 문구의 미국 국시 재천명 결의안을 상정시켜 지난 2일 396 대 9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다시 한번 미국인들은 미국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탄원으로, 경제적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보도한다 (US House Reaffirms 'In God We Trust' as National Motto).

(3면으로 계속)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성인 31%



식량지원만으로 불충분... 복음만이 희망!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조일구 목사(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조석훈 목사 순교자주년기념 추모음악예배

NEW VISION / NEW LEADER

Joseph's Vision 21

The Vision for His Mission (Gen 45:8)



대표회장 나광삼 목사

날 짜 December 29-31, 2011
 장 소 Skycroft Conference Center
 9621 Frostown Road Middletown, MD 21769-9610

문의 www.gmpcem.org
 전화 (240)381-8969

꿈 있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등록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주세요. (전화 문의 가능)



시론

사람을 찾습니다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며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정계나 교육계나 문화, 예술

여러 분야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지식과 지혜, 좋은 성품, 좋은 습관, 좋은 기술 등등 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게 이츠는 인생과 비즈니스 삶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무기는 좋은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 **긍정의 성품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긍정의 성품을 가진 자가 있고, 부정이나 불평이 성품화 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은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긍정의 생각으로 그 마음이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꿈이 허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긍정이 성품화 되어야 합니다. 물론 허영을 꿈이라고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긍정이 성품화 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리도 잡지 못한 채 순식간에 그에게서 떠나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성품은 우리의 전 지체에 신호를 보내어 말이나 모든 행동이 똑같이 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이 성품화 된 자에게는 그가 가진 꿈이 즉 그 꿈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기쁨과 보람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보람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2. **열정이 체질화 된 자를 찾습니다.** 열정은 역시 그 자체가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기대와 자신감에서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살며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일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긴다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열정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열정은 자신의 오늘과 내일을 한 편의 드라마화 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은 99%가 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바울의 열정을 잘 압니다. 복음의 비전을 위해 산의 위험과 강 위험, 매 맞음과 핍박과 고문과 구타와 감옥 그 어떤 고난도 그의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열정이 체질화 된 자들이었고, 그 열정이 식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숨지는 순간까지 변치 않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충정이 습관화 된 사람을 찾습니다.** 충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충정이 습관화 된 자가 있고, 게으르고, 무슨 일이나 근성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아무런 열심이나 기본적인 충정은 올바른 충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충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지도자가 바뀌어져도 환경이 달라도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맡겨진 일에 활활 타오르는 충정의 에너지가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 습관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과 열정과 충정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 된 자에게는 변치 않는 초심으로 자신을 독하게 다스리며 그 과정의 어떠한 고난도 결코 보지 않기 때문에 넘겨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과 열정과 충정이 습관화, 체질화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내일에 관심이 없고 전시적 효자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며, 언제나 요행을 바라며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기보다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림으로 자기가 앞이 되고, 뒷자리가 되기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긍정이 성품화 되어 있는 사람, 열정이 체질화 되어 있는 사람, 충정이 습관화 되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찾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성인 31%

바나리서치, “장기적 경제침체로 미국인들 점점 반제도적 성향화” 보도

오래 지속되는 경제 한파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연일 경기 부양이나 회복책을 제시하고, 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미국 젊은 세대들은 월가를 점령하면서 미전역으로 세력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기 침체 희생자인 미국인들의 정서나 경제성을 간파되고 있어 미국인들이 점점 더 국가나 금융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라는 '제도'권을 불신한다는 그리 밝지 않은 설문 결과가 발표됐다.

바나리서치(Barna Research)는 지난 4월 미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성인 1,014명에게 전화로 현재와 같은 경제적 파산 상황에서 살아가는 솔직한 심정을 물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잠재력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국가나 기업 심지어는 종교라는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상황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돼 (70 Million Americans Feel Held Back by their Past),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나리서치의 이번 설문 결과는 95% 신뢰도에 오차율은 +/-3.2%이다.

1. 미국인 중 1/3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기에만 급급하다.

사람들에게 있어 경제적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 1/3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겁지만 하다. 여기에는 전혀 자신의 의지나 재능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6%의 하루살

이들은 주로 20대 후반 성인들, 흑인, 이혼한 성인, 결혼하지 않은 개인들과 대학교를 다녔지만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삶과 신앙에 일치를 보이며 사는 크리스천들은 그리 많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소득 가정 중에서는 38% 정도가 과거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고 있고, 고소득 가정 중에서는 25% 정도 역시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갈등이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나 종교에 그 책임을 전가한다. 다시 말해서 도와달라고 했어도 아무런 반응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로 20대 성인들이나 대학졸업자들, 미혼 성인들, 비 크리스천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들이 하

한 자의 갈등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월가 점령 운동의 이면에는 바로 반 제도주의와 경제나 국가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환상에서 눈을 뜬 미국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보여진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증폭되고 있는 제도권에 대한 불만족은 단기적이라고 키너만은 진단한다. 왜냐하

삶과 신앙 일치보이며 사는 65세이상 크리스천들이 가장 행복 제도주의 국가, 금융권, 교회, 환상에서 눈뜬 실망과 분노 결과

이와도 같은 미국인들과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는 26%의 불만족스런 미국인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그나마 미국에서 제대로 자신의 기량이나 잠재력을 통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57%로 주로 엘더스(Elders, 65세 이상)나 삶과 신앙의 일치로 보이는 사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신앙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들만이 그나마 경제적 행복까지도 누리고 있다.

2.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산다.

현재의 삶이 각박하면 사람은 누구나 화려했던 과거나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로 자신의 삶을 의탁한다. 그런데 미국인들 중 무려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31% 성인들), 과거나 과거에 무엇을 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호소한다.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3. 거의 7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정서적인 갈등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다.

만약 당신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인 고통이나 갈등이 있다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응답하겠는가? 미국인들 중 30%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갈등과 고통 그리고 고민의 연속이라고 응답한 다.

특히 저소득 가정, 이혼한 사람들, 여성 그리고 신앙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반면에 결혼한 성인들, 엘더스, 남성 그리고 삶과 신앙의 일치를 보이며 사는 크리스천들은 이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살고 있다.

4. 미국인들 중 1/6은 교회와 종교의 역할에 대해 갈등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15%의 미국인들은

나눔에 대한 반감이나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유사하게도 16%의 미국인들은 교회공동체에서 경험한 상처들로 인한 '뒤끝'을 안고 살아간다. 특히 여성이나 부머세대(Boomers,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이혼한 성인들이 상처로 인한 쓴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를 이끈 바나리서치의 데이빗 키너만은 현재 보여지는 경제 침체는 “월가 점령대”처럼 1%의 가진 자와 99%의 가지지 못

면 월가를 점령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성취에 대한 갈망이나 희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절대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는 분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공동체는 현재 자신의 삶을 분노라는 외면적인 분출에서 지쳐 돌아오는 미국인들에게 신앙으로 이들을 치유하며 소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EM 사역자(Part-time) 청빙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자격**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친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목회소견서

접수마감일

- 종원시까지

보내실 곳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Rev. Kun Taek Lim)
9135 132St, Surrey, BC
V3V 5P6 CANADA

E-Mail: philachurch@naver.com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

604-584-5780 / 604-584-5717(Fax)
http://www.pcov.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을 발송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발송됩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식량지원만으로 불충분...복음만이 희망!

CT 보도, 소말리아 하루 2천명 아사...영적, 도덕적 개혁 요구

지난 7월부터,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이라 불리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극심한 가뭄은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오랜 가뭄에서 시작된 이번 식량위기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가뭄과 식량위기의 피해는 특히 소말리아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아브(al-Shabaab)의 위협으로 작년 8월 모든 인도주의 단체가 떠나야 했던 남부 중앙(South Central) 지역에서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많은 소말리아인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케냐로 대규모 난민의 행렬을 이루어 이동하고 있고, 이미 난민캠프는 소말리아 난민들로 혼잡한 상태이다. 최근 알샤바아브는 다시 인도주의 단체들이 남부중앙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가뭄으로 인해 2,000명 이상의 소말리아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소말리아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지역이다 보니 구호기관이 접근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난민이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400만 명은 아사 직전이다. 유엔아동기금은 최소 2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 상태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내전과 가뭄에 지친 영혼들이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리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사실을 통해 식량 지원만으로는 만성적인 내전과 기근에 시달리는 소말리아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 정권만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권을 개혁하고 이에 부응한 개혁정책으로 아프리카의 뿔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Fighting Famine Isn't Enough: Some 2,000 Somalis die of starvation daily, Drought isn't the reason).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최근 소말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빠진 국가로 분류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고, 소말리아인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 기능이 사라져버리니까, 해결되거나 테러리스트들의 운상이 되고 있기에, 선뜻 누구도 소말리아에 가겠다고 나서는 국가들이 없는 상황이다.

소말리아 현지 상황이 마치 무법천지와 같다는 점에 강조를 둔다. 그러나 크리스천들만이 상황에 개의치 않고, 병든 자, 홀리스, 굶주린 자들에게 지난 2010년부터 소말리아 현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된 인도주의적 단체들만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난행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현지에서 식량 지원을 통해 한 명이라도 아사로 사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경 지대에서 구호사역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다담 캠프는 케냐에 마련된 소말리아 사 람들을 임시 거주지로 4십만명이 자신들의 생명을 의탁하고 있다. 무려 2조 달러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구호품 그리고 생필품들이 크리스천 인도주의 단체들에 의해서 다담 캠프는 운영되고 있다.

최근 소말리아의 기근 현상을 살펴 펴보고 돌아 온 브라이언 스틸러(Brian Stiller),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신임 지구 대사는, 단순한 식량 지원만으로는 소말리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식량 지원만으로는 기근과 맞서 싸울 수는 없다. 전쟁과 내전 그리고 복잡한 소말리아 사정들이 만들어낸 기근을 소말리아에서 완전히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절실하다는 것이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천 인도주의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뭄은 분명히 자연적 재난입니다. 그런데 가뭄(drought)은 기후로 인한 재난이지만, 기근(famine)은 인간이 만든 인재입니다. 소말리아 정치적 상황이 바로 현재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스티러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소말리아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개혁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이 그 뜻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현재 소말리아 정권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고, 복음이나 서방 세계에 대한 미련이나 사랑이 없다. 1천만명의 사람들이 사는 소말리아에는 단 한 개의 교회공동체도 없다. 거기에 종교상의 자유도 없고, 새 정부 역시 종교상의 자유를 아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난민 캠프에서 복음을 접한 소말리아 크리스천들은 참으로 무모한(?) 희망을 날마다 꿈꾸고 산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무법천지이자 희망이 사라진 소말리아의 영적 가뭄에 대비와 같은 마셔도 마셔도 물리지 않는 생수라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근영양으로 힘들어 하지 않는다. 바로 심장을 비수로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영적 기근에 빠져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식량 지원만으로는 소말리아의 지친 영혼들을 살릴 수는 없다. 바로 영적이고 도덕적인 개혁과 갱신이 소말리아에서 벌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바로 교회공동체가 아무리 참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야만 증거를 역사하는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 앞두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보수 성향인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럴드 나들러(Jerrold Nadler, 민주당, 뉴욕) 의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하원 공식모토 압도적 재천명!

(1면에서 계속)

이 모토가 미국의 화폐에 삽입하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다. 모신 고생과 난관을 뚫고 정착한 청교도들은 첫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하고 난 후 제일 처음 한 것은 감사예배와 함께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다

2년째 수확을 한 후, 그들은 학교를 설립했다. 이것은 장래의 미국을 짊어지고 갈 2세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이다. 3년째 수확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 집을 지었다. 즉 이들의 우선순위가 나타나 있는데, 삶의 첫째 목적이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만 장래가 보장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치루고 독립이 되어서 영국화폐가 아닌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 때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주고 도와 주신 이는 하나님(GOD)이라는 신념에 차 있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지폐에 이 글을 넣게 됐으며 이 문자는 어떤 지폐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결의안을 발의한 랜디 포브스(J. Randy Forbes, 공화, 버지니아) 의원은 현재 하원에서 기도회 모임을 공동 주관하고 있다. 그는 “국가 정체성 위기와 국가적 모토에 대한 대중적

혼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신적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상징 이유를 밝혔다.

포브스 의원은 이 문구를 공립 학교와 정부 건물에 부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슬로건을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E pluribus unum)’라고 잘못 언급한 이후 슬로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는 1955년까지 미국의 표어였다.

따라서 동 결의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비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포브스 의원은 2일 동 결의안 통과를 위한 토론에서 “아직도 미국의 모토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치인이 있다”며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3일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저절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는 모토 재확인보다 일자리법 통과에 관심을 쏟으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포브스 의원이 상징안 동 결의안은 미 공식 문서에서나 전임 대통령들의 연설 등에서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성을 명기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까지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 앞두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보수 성향인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럴드 나들러(Jerrold Nadler, 민주당, 뉴욕) 의원은

상정을 반대하면서 “미국 모토는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며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이를 없애지 못한다. 모토는 돈과 의회실 천장, 워싱턴방문자센터 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인 테드 포우(Ted Poe)는 동 결의안의 통과를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이 모토에 강력하게 찬성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특별한 국가이며, 선택받은 국가로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미국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주는 봉화로 섬겼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문이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주셔야 하기에 동 결의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따라서 396 대 9라는 압도적인 표차는 공화당 233, 민주당 163 명의 하원의원들이 던진 물표로 국가 정체성 위기와 국가적 모토에 대한 대중적 혼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신적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초당적 협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동 결의안은 어떠한 법령이나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효과를 즉시 발휘할 수 있다.



목회학 박사학위 학생모집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본교는 1871년에 세워져 지난 140년간 교단과 인종 문화를 초월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해 온 북미주 ATS 학력인가 신학대학원으로,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Graduate Theological Union) 소속 신학교이며, 이번엔 LA에 본교를 세우고 목회학 박사과정(DMin)과 석사과정(MA, MDiv) 학생을 모집합니다. M. A. in Community Leadership 교회 평신도님들을 환영합니다.

1. 일정: 1차 세미나: 2012년 1월 16-27일 (두 주간 인텐시브, 월-금 9:00-5:00)
2. 자격: 목회학 박사과정: 석사학위 소지자로 목회경력 3년이상 (한국어 통역제공)
3. 1월 16일 주: 과목: Critical Interpret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Dr. LeAnn Snow Flesher and Dr. Sangyil Park
4. 1월 23일 주: 과목: Theology of Spirituality: Dr. Bob Wallace and Dr. Hyo Shick Pai
 - 모든 과정: I-20 Form 발행
 - 학자금 융자: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가 가능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목회학 박사과정은 일년에 두 차례 (1월, 6월) 두 주간 집중강의로 3년 내에 학위 취득
 - GTU 와 UC Berkeley 를 통해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과정 공부할수 있음
 - MA in Community Leadership과정은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임

Dr. Paul Martin: President; Dr. LeAnn Flesher: Academic Dean; Dr. Sangyil Park: Director of D. Min Program

입학문의

정승룡 박사: 213) 200-2592 Email: jsrj11@yahoo.com
김희창 박사: 213) 268-9367 Email: hoichangkim@hanmail.net
배효식 박사: 661) 755-5442 Email: drhyopai@gmail.com
Dr. Bob Wallace: baptistbob@verizon.net / Professor of Spirituality

ABSW LOS ANGELES CAMPUS
760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6
www.absw.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레오나르도 다빈치

서양의 이름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우리의 이름은 단순하게 짓는데 서양의 이름은 세례명이 있고 또는 존경하는 성인의 이름이나 성공한 가문의 이름을 덧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길고 동명인도 많게 된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도 다른 레오나르도와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 빈치(Da Vinci)라는 동네 이름을 첨가한 듯하다.

레오나르도, 그는 특별한 예술가였다. 데이비드 벅크라는 '천재 괴이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인류역사에

서 나타났던 세 위대한 천재집단을 추려했다. 기원전 440-380년의 아테네와 1440-1490년의 피렌체, 그리고 157-1640년의 런던을 뽑았고, 이 셋 중에서 가장 화려했고 풍부한 기록을 남긴 곳이 피렌체라고 했다. 당시 피렌체는 7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크지 않은 도시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그런 도시에 서 어떻게 그리 많은 천재가 짧은 기간에 우후죽순처럼 배출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천재 중 한 사람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집을 알고 있다가 P의 안내로 그 곳을 방문했다. 그가 태어난 토스카나 지방은 낮은 구릉으로 구성되어있어 그림 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곳의 풍경을 담기 위해 즐겨 찾았다고 한다. 레오나르도가 태어난 빈치는 감람나무들로 둘러싸여있는 농촌의 작은 마을이다. 이스라엘의 감람산에는 수령이 이천년이 넘는 감람

나무라고 소개하는데 이곳의 감람나무들도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나무들로 가득하다. 얼마나 감람나무가 많은지 가로수조차도 감람나무로 구성되었다. 뻗뻗하게 들어선 감람나무 가지들을 헤쳐 가며 구릉으로 난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어느 건물 하나가 오른쪽에 고즈넉하게 서있다. 그 건물이 바로 레오나르도가 출생한 곳이라고 한다. 다른 집은 없나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500여 미터 떨어진 저편 구릉에 한 채가 있을 정도로 이곳은 아주 외딴 곳이었다.

그 건물을 보더니 동행한 전남 장성의 깊은 시골에서 왔다는 K는 말한다. "내 고향 시골보다도 더 한 곳이었군." 이런 시골에서 그런 천재가 태어났으니 놀랍기만 하다. 아주 허술한 표정의 그 건물은 수리 중에 있는지 판자로 가려 놓은 모습이였다. 그리고 열네 살에 피렌체로 이주하여 베르키오 공방에 들어갔고 28살 때부터 벌써 유명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 땅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당대에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고독하가 가난한 삶을 영위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레오나르도는 행복한 예술가다 싶다.

그의 대표작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그라치의 교회당(Santa Maria delle Grazie)벽에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리고 밀라노의 성프란체스코 성당에 있던 것을 팔아버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압골의 성모(Madonna of the rocks)와 모나리자다. 그 중에서도 압골은 단연 모나리자라고 평론가들은 꼽는다. 그는 대상의 내면이 없다면 그 그림은 죽은 그림이라고 했다. 그래서 언제나 표피적인 그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대상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 몸부림 쳤다.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받침대에 올라가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며 종일 서 있곤 했다고 한다.

그는 그림의 윤곽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희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장안

했는데 그것을 스푸마토(sfumato)라고 한다. 이것은 석회를 바르고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속으로 뒤섞여 들어가면서 형성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도록 희미한 윤곽선과 스며든 부드러운 색채의 조화로움으로 여운을 남기게 했다. 마치 모나리자의 눈과 입모습이 보는 이마다 해석을 달리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정황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까지의 그림은 무엇인가 딱딱한 느낌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는 대상이 살아 있는 것 같고 영혼이 존재하는 것 같은 생생한 그림을 그렸다. 그의 대표작 모나리자의 은은한 미소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지 모른다. 그가 그린 그림의 중심인물에 대한 은은한 명암을 통해 그의 감조점이 느껴진다. 우리가 언제나 드물어야 할 그 분을 향한 신앙의 표현처럼...



푸/른/초/장

손태정 목사
(주성선교회 담임)



여러분의 이마에 ST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면 어떻까요? 아마 창피해서 아무 곳도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초기 청교도들 중에 Sheep thief 즉 양 도둑에게 이니셜로 ST를 이마에 찍고 다니게 한 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의 양 도둑이 ST란 낙인을 받았는데 둘 중의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 다니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마을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대신 사과해주고 대신 매맞아주고, 누가 임종하면 슬픈 사람 옆에 사흘이라도 같이 있어줍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 사람들은 양 도둑이라는 의미의 ST를 성자(Saint)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둑놈이 성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되었을 까요? 그는 수한 회개의 삶의 노력과 훈련으로 변화 되었고 결국 성자란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결국 변화된 것이지요.

변화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 가운데는 3부류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1. 변화의 시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
2.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사람
3.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모두가 3번을 말씀하셨는데 왜 3번이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 1:26에서 잘 가르쳐주신다고 믿습니다. 창1:26절에는 하나님이 인

간을 만드실 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스리는 존재는 변화에 반응하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고, 변화에 뒤 떨어지면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서 끝없이 변화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본문을 보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들이 아무

리 2세들이라고 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을 직접 본 자들이요, 아니면 그런 사건을 수없이 부모님께 듣고 자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암에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변화 앞에서 그들은 22절에 "정탐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 두렵고, 불안하

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서기위해 성화(제자)훈련으로 가는 길이 필요한 줄 알고 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도 불안합니다. "얼마나 시간을 내야 할지, 이리다 성경에 빠져 사모가 된다든지, 목사가 되는 건 아닌지, 맹신자가 되어 도에 뛰쳐나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 믿

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건 아닌지, 분명히 또 속제 내어 줄 텐데 학교 다니면서도 숙제한 것도 모자라서 이 나이에 또 숙제 하리!"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도 교인들이 힘들진 않을까? 이렇게 훈련한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중도 포기하면 아니 함만 못하는데...하면서 또 과연 잘 따라 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저는 성경 속에 베드로를 훈련시켜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의심 없이,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무식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에 퐁퐁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위를 걷고 있다는 겁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위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포옹을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베드로야! 정말 놀랐지, 정말 죽는 줄 알았지, 하시면서 베드로야 난 네가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물위를 걷은 사람은 너 한 사람 뿐이니까!" 하시면서 물에 빠진 사건보다는 예수님을 보고 물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칭찬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이민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인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 흠이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기 위

말아라"라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이라면 이 우리 이민교회가 적든, 큰 성화(제자) 훈련 시스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 기쁨을 드리겠다는 선한 마음, 선한 동기를 보시고 어떡하든 하나님은 우리 건지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울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렘도 훈련의 기간이 다 있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제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결국엔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게 하실 겁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실 겁니다. 온전한 성화(제자)훈련으로 이민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넘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변화를 위한 훈련이라는 황금 길을 갑시다.

“변화로 인도하는 황금길-훈련!”

신명기 1장 19-33절

니다. 베드로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이나 갔을까요? 그는 자신이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놓치고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해 성화(제자)훈련 더욱 열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과 똑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한 마디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이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민교회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탐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냥 나만 보고 한 번 해보면,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칭찬해주고 하다가 잘 못하여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 줄 테니 걱정하지

담임목사 청빙

Whichita Baptist Church is looking for pastor who must be a committed follower of Jesus Christ, a person whose life bears testimony of divine calling and gifts for ministry, and one who joyfully accepts his responsibility convinced of God's leadership and the enthusiastic affirmation of the church. He will lead the church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Qualifications/Requirements

1. 언어:이중언어 (영어/ 한국어) 영어로 원활하게 사역이 가능하신 분 (1.5세 한인 회망)
2. 교육배경 : 신학대학원 이상
3. 나이: 30세 이상
4. 목회경력: 최소 3-5년 담임목사 경력자
5. Immigration status: 최소 이민법상 Permanent resident 이상 이신 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해당 문서를 첨부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와 3년 이상 아시는 분의 추천서 3통(Include their contacts)
- 개인 소개서: 가정, 성장 배경, 신앙간증, 목회철학, 목회방침, 관심분야, 달란트
- 설교 2회분의 mp3, DVD, CD(택일) 및 해당 설교 노트 또는 프린트물
- 대학/신학원 졸업증
- 연락방법 (전화/주소/Email)
- 운전면허증 복사본
- 이민법상 영주권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Wichita Korean Baptist Church
9736 Chamberlin
Wichita, Kansas 67206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kbchurch@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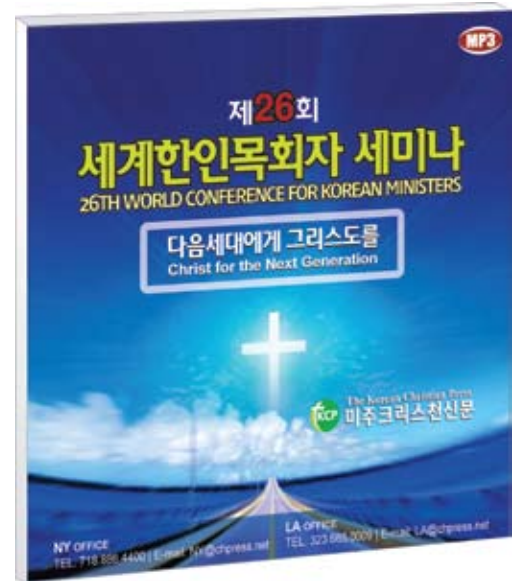
위치타 한인 침례교회

<http://www.wkbcks.org>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성,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승길, 이영섭, 김만형, 김성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교육칼럼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3)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본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순환달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부터 시작하여 4주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어 1월 첫 주부터 현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현절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하나님과 구세주로 계시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현절에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예배와 봉헌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순절로 지킴이 되는데 속죄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로부터 불잡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이어 바로 부활절로 교회력은 이어지는데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며 곧 우리의 부활이 확증된 믿음의 산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강림절 즉 오순절이

과정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호에 이어 '교회력에 의한 연간교육과정 세우기' 7월부터 서술하겠습니다. 7월은 교회력으로는 백추감사절로 지킵니다만 감사에 관한 주제는 11월 추수감사절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서 여름방학이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맞

고 이어 아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준비해 온 '관' 속에 아이들을 하나씩 넣고 못질까지 하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여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을 체험케 하였습니다. 과연 어린 아이가 그 적은 나이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기에 그렇게 까지 해야 했을까? 이제 좀 더 커가면서 또 어른이 되어 가면서 더

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그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들에게 흥미로운 것이 없어질 때면 그냥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8월에는 우리 한국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8.15광복절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둡고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역사의 기록의 한 페이지로만 남겨지고 전혀 무슨 날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2세, 3세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하여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는 행사나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8.15광복절이면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와 공동으로 감사예배와 더불어 행사를 갖는데 우리 자녀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우리

모든 프로그램은 기도로 준비하며 학습 활동 주체가 어린이들이 되도록 단방약 충격요법이 아닌 주일학교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이어지는데 오순절이란 50일을 뜻하는 것으로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며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신 사건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까지를 교회력의 전기축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어 6개월 동안은 후기축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원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축제기는 교회의 성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주신 구속사역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 교회문화가 형성되고 한 해,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육과정을 세우는데 있어 '교회력에 의한 교육과정 세우기'라고 타이틀을 붙였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일방적인 달력에 의해 교육과정을 세운 것은 이해와 수용의 편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교회력의 본질을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지킴이 있는 절기들과 주일학교 프로그램 등을 접목하여 주일학교 교육

추어 교육과정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여름성경학교를 6월 또는 7월 더러는 8월에 갖습니다. 또한 수양회나 단기선교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름 방학 기간에 갖습니다. 어쩌면 어린 자녀들이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계획부터 아이들에게 적당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VBS이든지 여름캠프(Summer Camp)나 리트릿(Retreat)이든지 단기선교이든지 기도로 잘 준비하고 학습과 활동의 주체가 바로 어린이 자신들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영적 체험은 물론 신앙적으로 도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단방약이나 충격요법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매 주일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팔로업(Follow Up)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여름캠프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

많은 죄를 지을 터인데 그 때는 과연 어떤 충격요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아이다운 방법 즉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너무 심한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돌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고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공한 훌륭한 한인들(정치인, 법조인, 체육인, 예술인, 교육가 등)을 초청하여 성공스토리나 간증을 듣게 하고 점심을 공급한 뒤 아이들을 야구장이나 농구장이나 박물관이나 수족관 또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디즈니랜드 등 유락 시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견학이나 놀이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주 효과적인 교육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연령과 생각의 범위에 따라 관심대상이 맞지 않으면 성공스토리나 간증이 빛나간 화살같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견학이나 놀이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

역사의 현장들을 알 수 있도록 일제 억압과 독립운동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의 활동들을 담은 DVD를 제작하여 영어로 내레이션(Narration)을 삽입하여 보여주는 등 그들의 문화와 접목하여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귀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는 교회력으로 창조절을 지킵니다. 성령강림절 약 13주가 지난 다음 9월에서 11월까지를 창조절로 설정해 지키는 것입니다. 1956년에 스코틀랜드장로교회가 이를 처음 채택했고, 캐나다연합교회는 1969년 채택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도 1978년부터 채택하여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 모르지만 9월을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설정하여 미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새 학기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주일학교도 9월부터 새 학년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커리큘럼을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백투스쿨(Back to School)과 새 학년의 의미를 잘 살려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바라는 열망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과 믿음과의 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13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제가 알기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20:11-14절을 보면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오나요? 생명책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책인지요? 정말 행위는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지요?
-토렌스에서 준 박 집사

A: 구원은 집사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한마디로 엡2:8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Sola Fide)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100%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0.001%도 안 들어갑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와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자기 힘으로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두더기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켜 인간의 행위로 구원

구원은 100% 하나님께...인간행위는 도움 안돼

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어느 누구 신학자의 말처럼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신인협력(神人協力)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인 영적 무능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1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백보좌 심판을 말하는 데 이것은 믿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닌,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지운다고 말합니다(계20:15).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는 행실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행실이 기록된 책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앙으로 인해 생명책에 기록되어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된 행위에 의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불 못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 목사고시 공고

(2012년도 목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목사고시 응시자격

1. 월드미션 대학교 신학대학원 또는 본 연합회 총회가 인정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M.Div. 또는 동등 학력 소유자).
2. 신학교 졸업 후 Full time 1년 혹은 Part time 2년 이상 전도사 목회 경력이 있는 자.
3. 사망감이 투철하고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무흠한 27세 이상 된 남자(딤후 3:1-7; 4:12).
4. 선교사 혹은 군복으로 입대하는 등 특별한 경우 여성에게도 안수

II. 목사고시 논문

- * 1-4번 성서, 조직, 역사, 선교 신학 중에서 한 과목 만 선택/ 5번 실천신학은 필수
- 1. 성서신학: "하나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논하라."
- 2. 조직신학: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논하라."
- 3. 역사신학: "OMC와 WEMA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학술하고 전망하라."
- 4. 선교신학: "WEMA의 세계선교 전략과 비전"
- 5. 실천신학(필수): "목회소명과 목회계획"(10 pages 이상)
- * 목사고시 논문은 U.S. Letter size(8 1/2x11) Double space, 15 pages 이상으로 작성한다. 논문은 Footnote와 Bibliography 형식을 갖춰 각 2부씩 제출할 것 (논문은 2년간 유효함)

III. 필답고사 (논문고시 합격자에 한하여 후후통보)

1. 성경종합시험
2. 조직신학
3. 헌법 및 목회상식

IV. 설교:

1. 본문 마 28: 19-20
2. 제목 자유
3. 7분 분량의 원고 제출
4. 면접 시 설교함

V. 목사고시 신청

1. 서류심사: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제출된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하여 논문을 준비케 함.
2. 제출서류: 모든 양식은 본 연합회 웹사이트(wema.net)에서 다운 받을 것
 - a. 목사고시 청원서, 추천서
 - b. 목사안수 청원서
 - c. 재직 증명서
 - d.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일반대학, 신학대학원(원본)
 - e. 이력서: 신앙경력, 학력, 일반경력, 가족사항
 - f. 사진 2매 (명함판)
 - g. 고시 응시료 (\$300)
 - h.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논문마감일: 2012년 2월 28일(주)
4. 면접: 2012년 3월 31일 오전 10시(서류, 논문 심사 후 면접 장소를 통보 함)
5. 안수식: 2012년 5월 중 제 26차 총회 시

* 제출처: 세계복음선교연합회 고시위원회 서기 이재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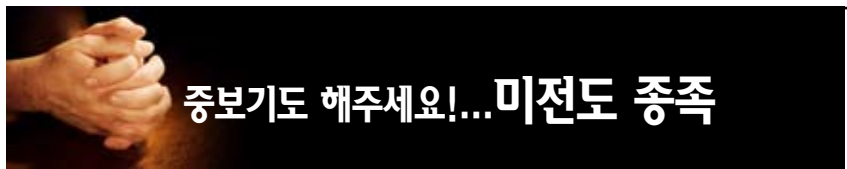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213)385-2322, 385-2332(Fax)



2011년 11월 11일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 김용식 목사 고시위원장 윤기성 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아얀간의 이푸가오(AYANGAN IFUGAO)



아얀간 이푸가오족은 필리핀의 말레이오-폴리네시아(MALAYO-POLYNESIAN) 집단인 이푸가오족에 속하는 종족이다. 5만명이 넘는 아얀간 이푸가오족이 전체 이푸가오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푸가오족이 주로 거주하는 이푸가오 지방은 필리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루존(LUZON)섬의 북쪽에 위치한 산악 지역이다. 언어는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어군에 속한다. 이푸가오족은 산사면을 계단식으로 깎아 계단식 논으로 만든다. 발전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계단식 논에는 강물의 물줄기 방향을 바꾸어 논을 가로질러 물이 흐르게 한다. 20세기 초까지 이푸가오족은 바칼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았다. 미국이 필리핀

을 지배하는 동안 이푸가오족은 미국인 군인이나 교사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 후 교통시설이 발달하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큰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삶의 모습

이푸가오족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다. 주요 농작물은 테라스(계단식 논)에서 자라는 벼이다. 또한 벼를 심는 사이사이에 목화, 콩, 무, 양배추, 완두콩과 같은 농작물도 심어서 키운다. 테라스를 만들지 않은 산사면에서는 '베기와 태우'의 화전농업을 한다. 일단 작물을 거둔 뒤에 남은 것을 태워서 다음 수확을 위해 땅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고무나무와 옥수수나 이러한 농업 방식으로 재배되는 주된 작물이다. 주식으로 고무나무와 함께 다양한 식품을 먹는다. 쌀

은 주식을 밋는데 더 많이 소비한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으며 사슴, 박쥐, 새, 메뚜기, 유충, 날아다니는 개미도 먹는다.

이푸가오족 10대 소녀 소녀들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진다.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즉시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아기가 젖을 떼는 순간부터는 아버지가 주로 아기를 돌본다. 여자들이 농사를 짓는 동안 남자들은 아이를 돌본다.

이푸가오족은 한때 사람을 사냥하는 풍습(머리사냥)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즉 공동체의 번식력이 증가하며 농장이 비옥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부족으로부터 사람 사냥을 당하게 되면 마을의 안녕을

해지게 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만일 한 마을에서 사람을 하나 잃으면 그들은 상대 마을 사람을 한명 죽이고, 그 머리를 취해 마을의 안녕을 회복시키려 했다. 그 머리는 그 사람을 죽인 남자의 집에 승리의 기념물로 걸리게 된다.

신앙

이푸가오족의 종교는 매우 복잡하다. 11개의 다른 부류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신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다. 조상을 달래기 위해 닭이나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조상의 혼에 대한 믿음은 장례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푸가오족은 시체를 최대한 예우함으로 죽은 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고인의 시체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의자

에 끈으로 묶는다. 만약 부유한 집의 사람이 죽으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시체를 옮겨 다닌다. 그러면 각 집안에서는 다른 집안보다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고인을 기억하는 연회를 베풀게 된다. 이러한 의식은 때로 2주간 계속된다. 그 뒤 시체는 동굴로 옮겨진다. 1년 후 동굴에서 뼈를 거두어내고 잘 씻어서 담요에 싸서 켜는 담요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뒤에 있는 선반 위에 놓여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이푸가오족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에 묶여있다. 비록 선교사들이 이푸가오족 사이에서 수년 동안 사역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아얀간 이푸가오족 사이에서 더욱 그렇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목회자 잇따른 자살... "이제 침묵 깰 때"

최근 텍사스 주에서 사역하던 한 미국 목회자가 자살하면서, 미 교계 내에 목회자 돌봄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텍사스 주 플라노시 헌터글렌침례교회에서 20년간 사역했던 킵 홀 목사(Kim Hall)는 10월 22일 새벽 플라노시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목회자의 자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8월 플로리다 대형교회(교인 약 8000명) 목회자인 제커리 팀스 목사(Zachery Tims, 42세) 역시 뉴욕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팀스 목사는 1996년 플로리다 주 아홉가 시의 데스티니 크리스천교회(Destiny Christian Church)를 개척해 담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약물 중독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변화를 경험했으며, 2009년에는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4명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회자의 자살은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다. 오克拉호마 주 털사 사우던힐스침례교회 담임 헤스터 목사는 최근 일어난 자살 사건과 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솔직히 사회의 무관심이 놀랐다. 죽음으로 몰고 간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한 동료 잃은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하며 살아갈 육신보다 고통스런 자리를 선택하면서까지 개인적인 고통을 끊을 욕심이 승했던 이유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스터 목사는 새들백교회에 기반한 목회자 돌봄 사역인 셀러브레이 리커버리 사역(Celebrate Recovery, 이하 CR)을 6년 전 시작,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교회 내 사역자들(목회자들이) 개인적 고민과 걱정거리를 자유롭게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R 사역은, 성경적 원리와 알코올중독회복 12단계 원리를 복합해 개발됐다.

헤스터 목사는 "수년 간 우리는 침묵 속에 많은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간과해 왔다(때로 그것이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침묵이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소통하고 털어놓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사역을 통해 4년 간 나 자신을 치유했다. 나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 많은 교회, 단체들이 목회자 돌봄 사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R 사역은 1991년 새들백교회에서 시작된 목회자 돌봄 사역의 하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60년 설교 인터넷서 청취

빌리 그레이엄(사진) 목사의 60년 설교를 클릭 한번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빌리그레이엄전도협회(BGEA)는 '빌리그레이엄 오디오 아카이브(보관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오디오 아카이브에는 그레이엄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한 1600여개의 메시지가 수록돼 있다. 설교는 인터넷 홈페이지(billygraham.org)에서 들을 수 있으며 날짜와 지역, 주제별 검색이 가능하다.

BGEA 커뮤니케이션 담당 켄 바론 부회장은 "그레이엄 목사는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한 미국의 첫 설교자였다"며 "인터넷을 통해 땅 끝에서도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디오 아카이브는 오는 7일로 다가온 그레이엄 목사의 93회 생일에 앞서 완성된 프로젝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다.

BGEA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는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60년 전의 설교가 현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울림과 감동을 던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며 다시 한번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바론 부회장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사역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했지만 그의 설교는 변하지 않았다"며 "메시지는 시기적절하며 지금 상황과 맞닿아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크루세이드(Crusade)' 집회를 끝으로 대중 전도 현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계승, '페스티벌(Festival)' 집회를 잇고 있다. BGEA는 올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질문에 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임신부 식량 지원 시급"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가 지난 1일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유니세프 북한사무소 대표인 비자야 라즈만다리는 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 어린이 등을 위한 식량 지원 활동에 2천4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460만 달러만 접수됐다"며 "기금 지원 없이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금지원이 안 되면, 북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북한에서 활동 중인 다른 국제 구호단체들도 비슷한 기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니세프는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과 인지발달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은 실사병과 중증 호흡기 감염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중국 내 탈북 고아 최대 10만명

중국에서 국적 없이 떠도는 탈북 고아가 최대 10만명에 이른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밝혔다. 이제까지 한국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 고아를 2만여 명으로 추산해왔다.



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과 중국 남성이 낳은 자녀의 상당수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며 "결국 중국 시민권에 해당하는 후구 취득이 거부되고 공공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또 비정부가구를 인용, "중국 내 탈북자들 중 70%가 여성이고, 이들 10명 중 9명은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미국 의회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이어 지난 4월 '미국적 북한 어린이 지원전략 개발 등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고, 앞선 2월 상원에서는 '2011 탈북 난민 입양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류우의 통일부장관에게 '6·25전쟁 포로 및 실종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튀니지, 이슬람 정당 압승에 기독교계 우려

튀니지에서 지난 달 23일 실시된 첫 자유선거가 이슬람 정당의 압승으로 결론난 데 따라 현지 기독교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르면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다(Ennahda) 당이 217석 중 90석을 얻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엔나흐다 당은 일반적으로 온건 이슬람 성향으로 인식돼 왔지만



현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제당과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과의 긴밀한 관계가 염려되려는 제고라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보도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온건 이슬람을 표방하며 혁명 후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지만 대표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중 하나다.

엔나흐다 당 대표인 라체드 간누치의 강경 이슬람 성향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신문을 이슬람 정당의 압승은 향후 제정될 헌법에 보다 큰 이슬람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의 종교자유가 과거보다 더 위협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의 근원지이자 그 영향을 받은 북아프리카 중동 국가들 중 첫 자유선거를 실시했다. 튀니지에서 이번 선거는 앞으로 다른 아랍의 봄 국가들의 선거 결과에 대한 조심스런 예측을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튀니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정당의 득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알자지라 연구센터의 라피크 압데살렘은 "튀니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나라의 일이 아니다. 아랍의 봄은 아랍 세계가 정치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p>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역목사: 케더린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 찬양: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p>	<p>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해 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5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 찬양: 오후 5:5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영역)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6:00 영 아 해 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9:0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p>	<p>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분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 이혼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 배: 오전 10:15 4부 예배: 오전 12:00 5부 영양예배: 오후 1:30 6부 BGM예배: 오후 3:00 7부 노인예배: 저녁 7: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새벽 6:00(월-토)</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금요기도회: (매일) 주, 3주, 8주</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토요 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어린이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배: 오전 2:30 새벽예배: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5:00 영 아 해 배: 오후 11:00</p>	<p>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20</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 아 해 배: 오후 2:00 효도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p>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A(1부) 주일 2부예배: 오전 11A(2부)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30분 NCF연예: 오후 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8:30</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8-4000 Fax. (718)898-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유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송보기도회: 아침 7:40(매일)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페니쉬 설교)</p>	<p>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스페니쉬 설교)</p>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조일구 목사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쉐마의 기독교 교육(1) (신명기 6장 4-9절)

한번은 어느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로는 도저히 자기 부인을 이길 수 없었기, 아내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피해서 얼른 도망쳐 달아났습니다.

남편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 아내는 보이지 않고, 어린 아들만이 문밖에서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가 벌떡 화를 내면서 아들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놈 어디로 도망갔냐?" 그러자 겁에 질린 아이가 엉겁결에 대답하기를 "예, 그놈... 저쪽으로 도망갔는데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흔한 이야기들 중에 "자녀는 낱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고, 기르기도는 바로 교육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자로 잘 기르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증이 나 면허증을 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데는 자격증도 없고 면허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부모노릇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교육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려운 자녀교육을 잘 감당해서 칭송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1,900년 동안이나 나

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과 박해를 경험하였고, 나치 정권에서는 최소한 600만 명이나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치의 만행은 대표적으로 동구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보면 잔인한 학살의 현장을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독가스 실험실과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품, 특별히 그들이 신년 신발들을 모아놓은 교실을 볼 때에는, 소나 돼지처럼 잔인한 학살의 비극적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리고 가슴 아픈 유대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

어져서 그렇게 유랑의 삶을 살던 저들이, 1948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들이 그렇게 2천년씩이나 유랑하며 이방 땅 이방 문화 속에서 흩어져 살았던 저들이었으나 저들의 신앙, 저들의 종교의식, 저들의 전통, 그리고 저들의 언어, 저들의 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한 마디로, '신앙교육'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교육 때문에 지금도 유대민족은 3-4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도, 조금도 세대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 신앙교육으로 인하여 세대 차이는커녕, 오히려 자녀들이 서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저들만의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의 각계각층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노벨상의 1/3을 유대인들이 수상했습니다. 특별히 경제 분야에선 65%를

그런데 이런 무서운 민족, 힘 있는 민족, 막강한 민족이 된 배후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바로 신앙 교육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 바로 오늘의 저 이스라엘, 오늘의 저 위대한 유대민족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 바로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더욱 위대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4-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한 마디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지만 원어 히브리 성경

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참으로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성경전체의 요약이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민족의 신앙의 총체적인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이 한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민족의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신앙교육의 교사가 누구였습니까? 저들의 부모였습니다. 유대민족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학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자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말라기2:15절을 보면 "여호와와는 영이 여여하실찌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경건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또한 이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유대인사회 세대차 없는 건 부모 신앙교육 때문 신앙의 총체적 말씀인 쉘마 핵심은 오직 '하나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영어, 찬양팀)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228-9540,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열린문교회</p> <p>담임목사: 박현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7:30</p> <p>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oor.org</p>	<p>나성서부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p>	<p>남가주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찬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저녁 8:0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은 신도들이 동역자를 기쁘게 합니다."</p> <p>Tel: (213)210-6890 / Fax: (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과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터 -</p>	<p>드림교회</p>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라하브라 삼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89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 평안교회</p> <p>담임목사: 송정명</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15 (찬양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www.milosepac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방주선교회</p> <p>담임목사: 박동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교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00(찬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대회) 주일 4부예배: 오후 5:00(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 Fax: (916)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손인식</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찬양) 청, 장년영양예배: 오전 11:30 오후 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p> <p>담임목사: 임건택</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오전 6:30(토)</p> <p>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www.lapco.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p> <p>담임목사: 장세경</p> <p>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Tel: (626)339-6177, Fax: (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세계비전 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양예배: 오전 9: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p> <p>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새창조교회</p> <p>담임목사: 정병재</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p>	<p>샌디에고 영락교회</p> <p>담임목사: 김명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Church: (858)571-5509 / home: (858)384-646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153@yahoo.com</p>	<p>안디옥장로교회</p> <p>담임목사: 지운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목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교우찬양예배: 오전 11:00</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pco.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p>	<p>얼바인침례교회</p> <p>담임목사: 한중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5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엄영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요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p> <p>Tel: (714)891-2029 / Fax: (714)375-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p>	<p>오웬스톤교회</p>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p>
<p>월셔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계기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org Tel: (714)446-621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인랜드교회</p> <p>담임목사: 박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11:45 금요찬양예배: 오후 9:1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30(토)</p> <p>www.inlandchurch.org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아침예배: 오전 6:30(월-토)</p> <p>Tel: (818)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이춘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p> <p>www.gpc.com Tel: (909)388-5425 /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p>	<p>코너스톤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cornestonch.com Tel: (310)330-4040(CH), Fax: (310)3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63.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과학이 아니라 자연사(自然史)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들 중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 명단 중에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존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루이 파스퇴르 등 쟁쟁한 과학자들의 이름들과 더불어 거의 빠짐없이 이름이 등장하는 좀 특이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업적은 다른 모든 과학자들의 업적과는 종류가 다른 독특한 것이다. 이 사람은 파스퇴르와 동 시대 사람이기도 한데 파스퇴르는 이 사람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단 파스퇴르뿐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거의 모든 과학자들도 그의 이론을 적극 반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이상한 이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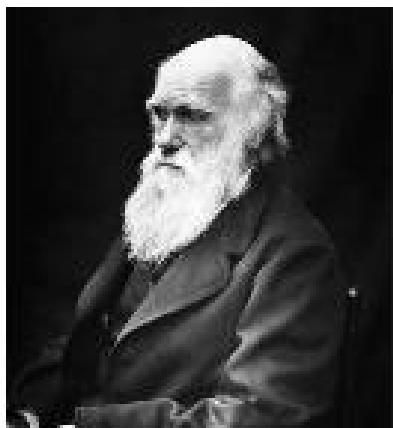
세상에는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 1809-1882)을 위대한 과학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영국에서 다윈은 영국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10파운드 지폐에 그의 초상이 올라 있고 왕의 대관식이 열리고 군주들과 유명한 과학자들이 문혀 있는 웨스트민스터사원(Westminster Abbey)에 뉴턴이나 맥스웰 같은 쟁쟁한 과학자들 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윈은 세기를 빛낸 과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과연 다윈이 위대한 과학자일까?

위키 백과사전에서 과학의 정의를 보면 "과학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체계를 말한다. 더 좁은 의미에서 과학이란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지식이란 것은 검증 가능한 방법 즉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구분하면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과학적이지 않은 지식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과학적이지 않은 지식이 가치가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과학적인 것은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

이 된 것일 뿐 이것이 전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은 과학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명은 관찰이 안 되고, 실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위키 백과사전을 보면 "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자연적인(초자연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과학의 분야들은 크게 다음의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연과학은 인간에 의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자연 현상을 다룬다. 둘째, 사회과학은 인간들의 행동과 그들이

'진화=과학, 창조=신앙'은 오판...다윈은 자연사학자일 뿐 진화론 근거로는 순수/응용 과학지식이나 기술발전 전무



자연사학자 찰스 다윈

진정한 과학자 파스퇴르에게 기생 비열은 받은 다윈은 과학자가 아니라 무신론적인 자연사학자다.

이루는 사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 앞에서 정의된 의미의 과학을 때로는 순수과학이라고 하여, 과학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는 응용과학과 구별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학이란 순수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으로 언제나 관찰이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실험도 가능한 종류의 지식을 말한다.

그런데 과학 교과서에는 순수과학도 응용과학 지식도 아닌데도 과학으로 소개 되는 지식이

있다. 바로 진화론이다. 진화는 관찰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되고, 더구나 반복 실험도 안 되는 지식으로 순수 자연과학도 아니고 응용과학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인전의 과학자들 틈에 다윈이 끼워져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다윈의 진화론 같은 이런 종류의 지식에 굳이 과학이란 단어를 넣는다면 역사과학(historical science) 혹은 기원과학(origin science)이란 이름을 붙여야 한다. 한편 순수 자연과학이나 응용과학은 실험과학(experimental science) 혹은 구동과학(operating science)이라고 불려야 한다.

역사과학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실을 과학적인 방법과 논리로 밝혀내거나 설명하는 학문으로 실험과학과 달리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하거나 무척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그럴듯한 가정을 끼워 넣을 수밖에 없다. 이때 설명자의 기존 지식이나 믿음이 구축한 세계관이 들어가게 된다. 대표적인 역사과학으로는 성경의 창조자를 인정하는 성경적 창조론과 창조자나 초자연적인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 유희론적인 진화론이 있다.

찰스 다윈은 과학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윈의 업적 중에서는 관찰과 실험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파스퇴르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물론, 현대 진화론자들까지도 다윈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현재 진화론자들이 다윈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은 창조론을 대신한 이론을 만들어 창조론을 억압하는데 성공했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을 적극 부인한 파스퇴르와 다윈을 함께 위대한 과학자로 소개하는 것은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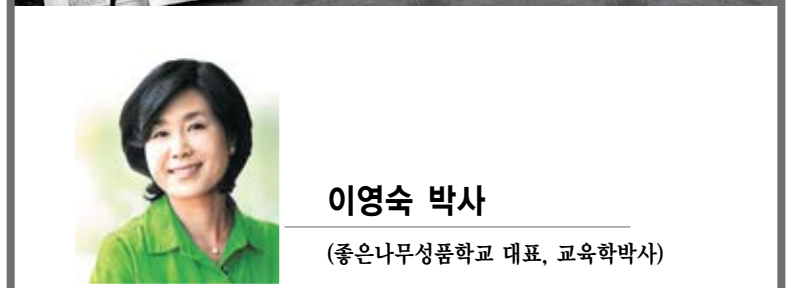
다윈이 한 일을 보면 그는 생물학자라기 보다는 박물학자였다.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동식물들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현대에는 이런 류의 활동을 지리학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런 지리학적인 관찰을 토대로 이런 존재들의 과거를 설명하였는데 바로 자연사(自然史)학적인 일을 한 것이다. 현대 생물학은 다윈이 진화라고 주장했던 종의 변화는 모두 다 한 종류 안에서의 변이(variation)일 뿐이고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선택이 실제로 관찰되는 예는 흔치 않다. 그러므로 다윈이 저술한 잘못된 지식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윈은 절대 위대한 과학자는 될 수 없다. 그는 이 세상에 창조자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돕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무신론적인 자연사학자일 뿐이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진화론이나 창조론 모두 다 일반적인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에서 '진화는 과학, 창조는 신앙'이란 판결을 하였는데 이것은 판사가 양심적이지 않거나 다윈에게서 온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 가지 꼭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단 한 줄의 순수 과학지식이나 응용과학 지식이나 기술 발전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과학 교과서의 참 과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창조를 사실로 믿었던 크리스천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성품칼럼 (27)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다음 세대를 좋은 성품으로 디자인하는 YES법칙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가르칩시다. 좋은 성품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즉시 따르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성품이지요. 순종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쁘게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속한 환경 속의 약속과 질서를 알아 순응하는 태도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거슬림없이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제화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세계인으로 키우기 위한 자녀양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아니라 좋은 성품으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 '성품 이노베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즉시 YES! 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YES 법칙을 가르치세요. 성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요. 자신의 의견과는 다를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문제해결방법을 가르치세요.

바로 YES 법칙이지요. YES 법칙이란 Y-지시에 즉시 YES하는 것입니다. E-Earnest(진지하게) 그리고 N-Not(반대)을 생각해보는 것이요. S-Suggestion(제안) 내 생각과 다를 때 예의 바른 태도로 제안하세요. YES 법칙의 효과는 실로 대단합니다. 여기서 때문에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르쳐본 부모님들의 놀라운 사례들이 좋은 나무성품학교 홈페이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수원에서 올라온 이야기 중에 7살 유예린 어린이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마와 학교에 입고 갈 옷 때문에 실갱이 하던 예린이 성품학교에서 순종의 성품을 배운 후의 어느 날, 엄마가 선택해준 옷을 보더니 순순하게 "네"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러 갑니다. 순간 엄마는 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성품을 배우시킨거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웃고 나온 예린이가 예의 바른 태도로 "엄마 그 런데요, 저 오늘은 다른 옷 입으면 안 될까요?" 하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진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선택한 옷으로 바꾸어 입혀주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을 정중하게 표현하면서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세련됨...

YES 법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YES! 그리고 한 뒤 고 생각하면 다음 예의 바른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훈련이지요. 부모가 좋은 성품으로 자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모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품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모델링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YES 법칙을 사용해 보세요. 부모의 성품이 자녀에게 거울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정치력,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 좋은 국민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세계가 하나로 점점 좁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모가 성공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취와 성과를 강조하던 눈높이를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풍성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품 좋은 글로벌 리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예배: 오후 8:00 평일 기도회: 오전 6:00 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 엘 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국어):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국어):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국어): 오전 11:30 금요 기도회(한국어): 오후 11:45 DM 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로운 청년부: 오후 1:30 동료부(영국)연락처: (978)251-1114 주지,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2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609</p>	<p>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p>	<p>알칸사 레자드 교회 담임목사: 최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 예배: 오후 7:30 금요 찬양: 오후 8:00 새벽 예배: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시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p>	<p>앵커리지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얼린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시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승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전 2:3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목요 찬양: 저녁 8:00 www.l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루터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www.josephvision21.org 매일 저녁 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일)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35-6207, 531-9424 9424 S. Beretania St., Hon., HI 968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 영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542-9515 www.hwail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본문/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lk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토)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8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지역</p> <p>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808)739-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예배: 오전 9:00 주일한어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8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 Hon.,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OC교협 새회장 엄영민 목사 선출

21회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에 민경엽 목사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원영호 목사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원영호 목사 PCUSA 남가주 하와이 대회장 취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위기 극복하도록”

미국장로교(PCUSA) 남가주 하와이대회장(Moderator, Synod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원영호 목사 취임식이 11월 5일 라 카나다장로교회에서 거행됐다.

직전 대회장 Rev. Arthur Ross로부터 취임선서 후에 대회장 휘장을 전달받은 원영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도전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의 본연자세로 돌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을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 예배에서 Rev. Dr. Leon Fanniel은 “전진하라”(빌3:12-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며 전방목 목사가 성만찬 예식을 집전하

고 한미노회 여성교회 임원들의 찬양과 성령찬양으로 중고등부의 특별찬양의 순서가 있었다.

남가주 하와이 대회에는 산하에 한미노회를 비롯해 8개의 노회가 있으며, 지역은 남가주와 하와이를 포함하고 있다. 원 목사는 서울시립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워싱턴주립대학교, UCLA 토목공학박사과정, 풀러신학교(M. Div)에서 공부했으며, 베델한국교회 행정목사를 거쳐 현재는 성령찬양장로교회 담임목사, LA 카운티 셰리프 재플린, 남가주 한인 목사회 부회장, KCC(한국교회연합) LA간사, GEDA선교회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오렌지카운티(OC)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목사)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엄영민 목사, 수석부회장에 민경엽 목사를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엄영민 목사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민경엽 목사 기도, 신원규 목사 설교, 백낙균 목사 광고, 정영수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신 목사는 빌립보서 3:3의 말씀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목회자들이 되고 교협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목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총회는 서기가 회원점명을 한 후



2011 사랑의 쌀 나눔운동 초청리셉션이 LA총영사관에서 열리고 있다

‘2011 사랑의 쌀 나눔운동’ 공식 출범

올 4회째...1만포 목표·후원음악회 3회 개최

남가주 전 한인사회의 언론과 교계가 연합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2011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7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와 LA 총영사관이 공동주최하고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성금 모금을 통해 사랑의 쌀을 마련, 이웃들과 나누는 뜻 깊은 행사다.

이를 위해 7일 오후 4시 LA총영사관에서 초청리셉션이 열렸다. 이날 송정명 목사(미기총 대표회

개회선언, 각부 보고와 회의가 진행됐으며 이날 정관 제3장 10조 회집일자를 12월에서 11월로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엄영민 목사는 “부족한 자에게 큰일을 맡겨 주셨다. 최선을 다해 OC교협을 섬길 것이다. OC교협은 이미 전 임원들이 좋은 전통을 세웠고 위상도 높아졌다. 앞으로도 교협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엄영민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남가주노회 노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회장 엄영민 목사 △수석부회장 민경엽 목사 △부회장 박상목, 손병렬, 오세호, 송규식, 고현중, 윤덕근, 이후우 목사 △전도회연합회 회장이며 총무 백낙균 목사 △서기 이춘덕 목사 △회계 이지수 장로가 각각 선출됐다.

〈이성자 기자〉



로스보울 연합기도대회 강사와 임원모임이 있는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10만명 참석예상, 한인 1만명 참석 기대

영적대부흥 위한 11/11/11 로스보울 연합기도회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한 11/11/11 로스보울 연합기도회를 위해 남가주 교협, OC 교협 등 남가주 지역 교계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남가주에 기도의 불길

이 타오르게 하자고 다짐했다.

11일(금)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연합기도회의 한인주관 기도회는 오후 6시 15분부터 2시간 동안 열리게 된다. 기도회는 16명으로 구성된 찬양팀(인도 박종술 목사)이 찬양인도를 하며 김영길 목사, 한기홍 목사, 김인식 목사, 엄영민 목사, 박용덕 목사, 진유철 목사, 유영기 목사, 박성규 목사, 김성민 목사(영어), 박형은 목사(영어), 최경옥 목사(영어), 한종수 목사(영어), 그리고 스테판정, 김준근 교수, 김정숙 사모 등이 기

도회 인도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기도의 제목들은 △미국과 자신의 회개기도 △교회와 목회자 △성경적 가정 회복 △공립학교와 교사들 △영화 TV 등 언론의 복음화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한국과 남북통일 등을 위해 기도한다.

전체 참가예상 인원은 10만 명이며 그중 한인성도 참가 예상인원을 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많은 한인 교회들이 금요일집회를 이 연합집회로 대체해 참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로스보울엔 당일 KCCC 소속 200여명의 한인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안내를 맡게 된다.

참가자는 음료수는 지참할 수 있어도 음식은 가지고 들어 갈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213)384-5232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30회 남가주성서대합창제에서 이날 모인 참가자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 마음껏 송축”

남가주음악협 창립40주년 제30회 성가대합창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는 제30회 남가주성서대합창제를 6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세정 목사(브리지교회) 개회기도 후, 남가주사랑교회 조성환 음악목사와 서미령 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합창제는 황성삼 회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은혜한국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지휘 박정식), 브리지교회(담임 장세정 목사, 지휘 원영진), 정신동문코코스(단장 전문자, 지휘 박혜원), 큰빛교회(담임 민 목사), 18일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노형건 선교사의 지휘로 ‘헨델의 메시아’를 80여명의 여성합창단이 부르게 된다.

이정옥, 늘푸른선교교회(담임 조성은 목사, 지휘 강민석), 남가주 사랑의교회(지휘 조성환 목사)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합창제는 연합성가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함께 부른 후 박성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황성삼 회장은 “남가주한인교회 음악협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남가주성서대합창제를 통해 주님을 마음껏 송축하고 경배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저녁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안식과 회복으로의 초대’ 주제

제7회 열린말씀컨퍼런스 강사 8명 연속강의

제7회 열린말씀 컨퍼런스가 ‘안식과 회복으로의 초대’란 주제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4일과 5일 양일간 열렸다. (사진 11면)

이번 컨퍼런스는 4번의 전체집회와 5번의 세미나 그리고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둘째 날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진 전체집회에서 이국진 목사(필라사리의교회)는 ‘참 안식의 실제’(계 21:1-7)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안식의 참된 개념은 노동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은 ‘우리가 죽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천국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안식에 거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박준호 기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참된 안식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적인 안식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2년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남가주에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김한요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박영배 목사(풀러튼 뉴라이프선교교회), 이국진 목사(필라사리의교회), 정대성 목사(콜로라도 뉴라이프선교교회), 최정권 목사(헬튼햄장로교회), 한성운 목사(나성남포교회)가 강사로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자 한다”고 밝혔다.

2011 사랑의 쌀 나눔운동 대회장인 한기홍 감독은 “이번 사랑의 쌀 나눔운동은 교파와 종파를 초월해서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나눔운동으로 인해 도움이 손길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쌀 후원음악회가 12월 16일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 목사), 17일 OC제일장로교회(엄영진 목사), 18일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노형건 선교사의 지휘로 ‘헨델의 메시아’를 80여명의 여성합창단이 부르게 된다.

〈박준호 기자〉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동부교계 기사판

east

‘요셉비전21’

21세기요셉운동(대표 나광삼 목사)이 주최하는 ‘요셉비전21’이 “The Vision for His Mission(창45:8)”이라는 주제로 12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매릴랜드 스카이크라프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다.

▲문의: (240)381-8969

뉴욕교협 제38회기 시무예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제 38회기 시무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 및 제 26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358-0074

뉴욕중부교회 임직식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13일(주) 오후 5시 집사장립 및 취임, 권사 임직식을 갖는다. 집사장립 6명, 집사취임 3명, 권사임직 10명 등 총 19명이 임직한다.

▲문의: (718)279-2757

뉴욕농아인교회 일일차집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가 설립 3주년을 맞아 일일차집을 운영한다. 일시는 19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소는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지하에 있는 본 교회이다. 수익금은 전액 제3국 농아인들과 미주농아인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문의: (917)991-0703

‘뉴욕 나눔의 집’ 토요일음악교실 오픈

‘뉴욕 나눔의 집’(디렉터 안승백 목사)이 11월 19일부터 토요일음악교실을 연다. 레슨 종류는 기타(베이스 포함), 키보드, 피아노, 음악 기초 이론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강사는 김영대 목사. 비용은 시간당 10달러로 나눔의 집 노숙인 사역을 후원하게 된다.

▲문의: (718)791-1334, (646)233-8770

뉴욕색소폰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뉴욕색소폰 오케스트라(단장 유진웅) 2011 창단연주회가 12월 8일(목) 오후 8시 플라싱 타운홀에서 열린다. 연주회 수익금은 고교 고아를 돕는 고어헤드선교회를 후원하게 되며 앞으로 동 오케스트라는 베네프 연주(양로원, 고아원)와 선교 등을 계속한다고.

▲문의: (718)539-7929

뉴비전청소년센터 미얀마에 선교사 파송

28일 후원의 밤 행사...고아원0청소년 사역 집중

필라 뉴비전청소년센터(원장 채왕규 목사)가 주최한 ‘미얀마 선교사 파송 후원의 밤’ 행사가 28일 오후 라이라이 식당에서 1백여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채왕규 원장은 “지난 13년간 부족한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독지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 시간 뉴비전청소년센터의 존립이 가능 할 수 있었다”며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야말로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14일 현지로 떠나는 김복례 선교사는 “13년 전 암 투병 등 어려움을 겪을 때 뉴비전센터를 만나 오늘까지 함께하시는 동안 미얀마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90%가 불교신자인 미얀마에서의 주 사역은 고아사역과

청소년사역을 비롯 미용기술 전수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미용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파송 행사에서는 파송의 노래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기백 씨의 특송과 김한규 씨서폰 동호회의 연주가 이어졌다. 한편 뉴비전 청소년 센터는 미얀마 선교사를 돕기 위한 매월 10달러 이상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센터는 올 겨울에도 군고구마 판매에 나섰다. “마약에 쓰러지는 우리의 자녀를 구합시다”라는 마약퇴치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 경쟁기금마련을 위해 필라 헬트렘 한아름 마트 앞에서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구마 1박스 후원금은 35달러이다.

(기사제공: 뉴비전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 새 대표에 최예식 목사

제17회 이사회 정기총회, 이사장 이수일 장로 유임

뉴욕교협산하 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17회 정기총회가 지난 7일 저녁 플라싱 산수감산2 식당에서 열려 새 대표에 최예식 목사, 이사장에는 이수일 장로를 유임시켰다.

김현돈 목사를 새 사무총장으로 맞고 처음 갖는 이번 총회는 이수일 이사장의 사회로 개회기도 민병열 대표, 회원점명 한재홍 서기, 개회선언, 회순제책,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회계보고, 이사회 보고, 프로그램 보고의 순서로 이어졌다.

청소년센터의 2011년 수입은 251,865달러, 지출은 255,007달러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로 3,142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2012년 예산 총수입은 252,052달러



감경철장로에게 회장 취임패를 전달했다 오른쪽은 문석호 KCTV 이사장

“세계를 교구로 순수복음방송 전파” KCTV, 감경철 회장 취임감사예배

뉴욕기독교TV방송(KCTV, 타임 워너케이블 533)이 지난 1일 저녁 감경철 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감 회장은 “지난 몇 년간 KCTV 이사로 사역해온 경험과 한국에서 10년 이상 CTS 기독교TV사장으로 경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KCTV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 회장은 ‘순수복음방송’과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이 될 것을 다짐하며 △차별화된 채널 구현 △한인동포와 지역 콘텐츠 활성화 △격조 높은 해외 프로그램 방송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 확대 등을 새 모토로 내걸었다.

저녁 7시 플라싱 코리아나 식당에서 열린 감사예배는 이학권 목사의 사회로 기도 이규섭 목사, 특별찬양 뉴욕권사선교합창단, 말씀 방지각 목사, 축도 김해중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은혜로

말은 청지기”(벧전4:7-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인생 최고의 투자 및 선물”이라며 “사랑과 대접, 봉사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일 목사의 기도 후 만찬의 시간을 가졌으며 도회정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2부 취임식은 문석호 이사장의 인사, 취임패 전달, 취임사, 축사 한창원 뉴욕한인회장, 김영목 뉴욕총영사, 로리 랙크만 뉴욕시 의원, 특별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축가 살롬중창단, 인사 및 광고 박용기 부이사장, 폐회기도 김용의 뉴욕목사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KCTV이사회는 이사장 문석호 목사, 고문 방지각 목사, 김종연 목사, 이사로 강현석 장로, 손석완 장로, 이학권 목사, 장동일 목사, 정인국 장로, 최영태 장로가 있다.

(유원정 기자)



군고구마 기계 옆에 채왕규 목사가 서 있다.

임원선거는 공천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가 공정한 최예식 목사를 대표로, 이수일 장로를 이사장에 유임하는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최예식 목사는 “청소년센터가 화합의 모습을 보이며 탈선과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뉴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사역의 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겠다”며 “이를 위해 실행이사들과 만남을 갖고 각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KYC와의 연합, 웰터 매각 등이 토의됐으나 결의한 사항은 없었다.

한편 이날 새로 8명의 이사가 영임됐으며 사임한 12명을 제외하고 총 43명의 이사진이 확보됐다. 새 이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현돈 목사(사무총장), 김요셉 목사(예수생명교회), 장규준 목사(뉴욕새천년교회), 장경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 박명준 목사(신일교회), 황영송 목사(뉴욕수정성결교회), 이재홍 목사(에베에셀선교교회 동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유원정 기자)



6일저녁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GKYM 후원의 밤에서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로체스터’ 11 GKYM 1천20명 1차 등록

이희돈, 김영길, 로렌커닝햄 등 주강사 확정

오는 12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미 동부 로체스터 리버사이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청년연합대회인 로체스터’11 GKYM이 지난 10월 15일 1차 등록에 1천20명이 신청하는 호조를 보였다. 2차 등록은 11월 15일 마감(200달러)하며 총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15일까지 등록할 경우 250달러이다.

지난 6일 저녁에는 대동연회장에서 GKYM 후원의 밤을 가졌으며 확정된 주강사 명단을 발표했다. 현재 확정된 주강사는 △이희돈 장로(현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부총재)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로렌 커닝햄 목사(국제예수전도단 YWAM 설립자) △제리 란크 목사(International Mission Board 대표) △조나단 봉크 목사(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전무이사) △재손 마 목사.

이외에 문화사역팀으로 찬양팀 스타필드, 소향, 선에(원더걸스) 등도 참가한다.

6일 열린 후원의 밤에서 대회준비위원장 김해택 목사는 “GKYM운동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세계 선교운동으로 특히 미전

도 종족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지상명령 성취에 가장 적합한 영적 자원으로 준비시켜셨다”고 강조했다.

또 김해택 목사는 “미주한인 2세들은 타 문화에 적응한 경험이 있고 탁월한 언어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민 1세대들의 믿음의 열정, 기도의 영성, 헌신과 순종을 물려받았다”며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교회의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을 3,300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기 위한 놀라운 복음의 도구”라며 이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날 후원의 밤에는 2008년 캐나다 첫 대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GKYM대회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2009년 대회에서 미주 청년들 중 500여 명이 단기선교사로, 또 50여 명이 장기선교사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전했다.

한편 버지니아/매릴랜드/DC 지역을 위한 GKYM 지역별 사전대회(mini-GKYM)가 11일(금) 오후 7시 필라 영생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5

ROCHESTER'11 WWW.GKYM FEST.ORG

세계 청년 선교 축제

GLOBAL KOREAN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DEC 27-30

“BEAUTIFUL FEET FOR ALL NATIONS”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Romans 10:15

HOSTED BY GAP USA (Global Assistance Partners)

PARTICIPANTS 18+ or College students

REGISTRATION FEES \$200 Until Nov. 15th \$250 Until Dec. 15th

LOCATION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HYATT, Radisson, Rochester Plaza Hotel, DoubleTree

CONTACT USA : 551-486-0100 CANADA : 647-828-0515 E-MAIL : roc11info@gkymfest.org

SPEAKERS



JERRY RANKIN President Emeritus of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

JONATHAN BONK Executive Director of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OMSC)

YOUNG-GIL KIM President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LOREN CUNNINGHAM Co-founder of Youth With A Mission (YWAM)

SOHYANG CCM Artist

STEVE DOUGLASS President of Campus Crusade for Christ International (CCCI)

DAVID HEE-DON LEE Vice Chairman of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

ALVIN REID Professor of Evangelism and Student Ministry at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남가주교협 새회장에 변영익 목사

제42차 정기총회, 수석부회장에 진유철 목사

남가주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 제42차 정기총회가 지난 7일 오전 10시 벨앨장로교회(담임 변영익목사)에서 개최된 신임회장에 변영익 목사, 수석부회장에 진유철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변영익 목사는 “남가주 교계의 대표로서 짐이 무겁다. 많은 분들

의 교계 협력을 바란다.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42차 교협이 ‘화합하는 교협, 함께가는 교협, 도움주는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종기 회장의 사회로 시작, 임규서 목사의 개회기도 회원점명, 회순 통과 등으로 이어졌다.



남가주교협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성성결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나성이 하나되는 음악회에서 나성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나성성결교회 설립41주년 맞아 ‘나성이 하나되는 음악회’ 개최

나성성결교회(담임 정호윤 목사)는 교회설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교회 이우연 집사의 사회와 정호윤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나성성가대, 찬사들의합창, 드보라중창단, 나성남성중창단 등의 찬양이 있었으며 String&Wind Ensemble의 핸드벨 연주, 나성 유스무브먼트의 워십댄스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가 특별출연해 이날 음악회를 빛냈다. 이날 음악회는 나성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후 안대훈 원로장로의 기도로 마쳤다.

이날 정호윤 목사는 “4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왔다. 앞으로 LA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준호 기자)

‘관계회복, 기도회복’ 강사 황순원 사모 남가주든든한교회 여선교회 ‘여성기도축제’ 개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여선교회 주최 ‘여성기도축제’가 황순원 사모(사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됐다.

황 사모는 첫날 집회를 통해 요 21:15-17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며 “여성들이

기도해야 가정과 사회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날 집회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난 결혼관의 세 가지 조건은 ‘떠남, 연합, 한 몸’이라고 제시하고 “부부가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듯 예수님과 내가,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며 “순결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순종하기 위해 맘을 흘리고 순교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삼순이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성자 기자)

그러나 수석부회장 선출 때 교협회칙 15조 회장의 자격과 16조 임원선출 방식의 범조항 해석의 이견으로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제7차 영적쇄신집회에서 김문훈 목사가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 제7차 영적쇄신집회 ‘복된 인생이 되라’ 주제로 김문훈 목사 초청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초청 제7차 영적쇄신집회를 ‘복된 인생이 되라’라는 주제로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대의 찬양인도와 김기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에서 김문훈 목사는 “좋은 성령님(눅1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김 목사는 “진정 성공한 자는 성경을 통해 길을 찾는 것이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관리대상이 아닌 관심대상이요, 서로 섬기고 받들고 도와줘야 한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오직 성

령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변화 받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체험하고 성령충만하여 좋은 성령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번 집회는 김문훈 목사가 첫날 ‘시련과 축복’(약1:1-5), 셋째날 새벽 ‘가정의 기적’(요2:1-11), 셋째날 저녁 ‘소박 축복 대박’(마25:14-21), 주일1부 ‘인생 삼중고’(막10:46-52), 2부 ‘생기의 바람’(겔37:1-5), 3부 ‘백향목 성장’(시92:12-15)이라는 말씀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이전감사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기념촬영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이전 감사예배

빅토빌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가 지난달 30일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성일 목사의 인도로 기도에 이우 목사(국제개혁신대 총동문회 회장), 설교는 박동욱 목사(스헤미야사역원 대표)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라”(눅24:13-35)라는 제목으로 했다.

박동욱 목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시는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으로 변화돼 되돌아가 주님의 사역자들로 헌신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감사하며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라고 전했다.

권면은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 담임), 김현수 목사(토크앤션한목자교회 담임), 축사는 이준준 목사(장대교회 담임)가 했다. 예배는 조광수 목사(L.m.f.선교회 대표 겸 캄보디아웨스트민스터 학감) 축도로 마쳤다.

김성일 목사는 축하객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문제 많은 건물도 교회당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서부교계 게시판

미서부침례신대 2012년 봄학기 학생모집

미서부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총장 폴 마틴 박사)는 2012년 봄학기 목회학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2012년 봄학기 일정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Critical Interpretation and Project Development(강의: Dr. LeAnn Snow Flesher), 23일부터 27일까지 Theology of Spirituality(강의: Dr. Bob Wallace) 등 인턴십코스로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강의 장소는 LA캠퍼스로 사용되는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A, CA)이다.

▲문의: (213)200-2592/정승룡, (213)268-9367/김희창, (661)755-5442/배효식

제7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음악회

예수사랑선교회(대표 조병국 목사)는 제7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음악회를 12일(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글래디스 파크(806 E. 6th St, LA)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LA 다운타운 홈리스들에게 따스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담요나누기 행사와 의료봉사(독감예방주사 접종, 피검사 등)를 겸해 시행한다.

▲문의: (213)445-2488

창작무용극 ‘지저스 지저스’ 공연

임관규 무용단의 창작무용극 ‘지저스 지저스’(Jesus Jesus) 공연이 오는 12일(토) 오후 7시와 13일(일) 오후 5시 남가주웨슬리교회(담임 박혜성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임관규 집사를 비롯, 임관규 무용단의 단원 16명이 출연해 기독교 문화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선사하게 된다. 한편 본 교회는 20일(일) 오후 5시 전도집회인 ‘새생명 축제’를 개최한다. 강사는 의사이자 가정사역자로서 약 25년간 세계 각국의 교회 집회와 코스타(유학생 수련회), 자마(예수대학성운동) 등의 행사에서 강사로 활약해 온 박수웅 장로.

▲문의: (909)397-5737

토론토 한마음장로교회 파트타임 사역자 청빙

토론토 한마음장로교회(담임 장준호 목사)는 청년, 찬양, 아동부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25세부터 35세사이의 사역에 열정이 있는 자로 BA나 M.Div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서 이력서, 경력서, 신앙 간증서, 추천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416)561-4514



한길교회에서 열린 제7회 열린말씀컨퍼런스에서 미국진 목사가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 (기사9면)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봄학기 학생모집

본교 소개 및 특전

-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선교학 석사학위 전과목 온라인 강의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석사과정(온라인)

- 지원자격: 학사학위(B.A.)소지자
- 신청방법: 우편 혹은 이메일
- 신청마감일: 2011년 12월 15일

- * Bible Study Methods (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Dr. Stephen Park
- *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 (세계종교의 이해) Dr. Tom Stallter, Dr. Stephen Park
- * 이수과목 12과목 (36학점)

박사과정

본교강의	지역강의
Jan. 23-Jan.27 (1월 23일-1월 27일) *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워크) Dr. Roger Peugh	April 10-April 14(4월 10일-4월 14일) ***Los Angeles, CA Philosophy of Ministry (목회철학) Dr. Rock LaGiola
Jan. 30-Feb. 3(1월 30일-2월 3일) * Anthropology(인류학) Dr. Thomas Stallter *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Park	April 16-April 19(4월 16일-4월 19일) ***Manila, Philippine Leadership in Local Church(지역교회 리더십) Dr. Jeffrey Gill ***New Delhi, India

-학교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총장: Dr. Ronald Manahan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일제 개신교 암살음모 파헤친다”

1911년 ‘105인 사건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일제강점기 당시 교회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 서구 열강과 힘겨루기를 해야 했던 일본으로서 미·영·일 등 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불편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1년 ‘105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제가 서북지방의 기독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신민회

회원을 검거하고 모진 고문을 자행한 뒤 105명을 기소할 것을 말한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원은 5일 ‘105인 사건의 재조명’이란 주제 아래 학술 심포지엄을 갖는다. 105인 사건을 중심으로 선교사의 역할과 해외선교본부의 인식, 사건 당시 체포됐던 인사들의 이후 행적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 발제문에 따르면 105인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내한 선교사와 해외 선교본부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김승태(세계선교신학대) 강사는 “105인 사건은 일제가 조작한 것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에 선교사들은 총독부 관리들을 찾아가 구속자들을 변호했으며, 마렛·에비슨·휘트모어가 선교사 대표로 데라우치(寺內) 총독을 직접 면담해 선교사들의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힌다. 그는 또한 “영국 선교연합회가 영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선교본부가) 국제 여론으로 일본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 결과 일제는 11에서 유죄 판결을 받

그리스도의교회총회 ‘2016년 세계대회’ 유치 박차

[미션라이프] 그리스도의교회총회는 최근 대전 용전동 총회회관에서 제76차 총회를 열고 새 총회장엔 박윤배(대전 은혜교회·사진) 목사, 총무엔 민동규(월드호스피스 대표)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2016년 그리스도의교회 세계대회’ 유치를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형제 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그리스도의교회교역자협의

회와 함께 ‘3교단 발전협의회’를 강화, 교단 통합을 위한 연합사업에 주력한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대회와 목회자수련회, 구역 및 주일공과 편찬 사업을 전개한다. 새 대표회장엔 선출된 박 목사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 즉 하나가 되려는 그리스도의교회운동에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기총 7·7 특별총회 개혁성관 유지돼야”

9개 교단 회원들 “실행위 개정 추진 절차에도 하자”

지난달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실행위원회가 발의한 정관 개정과 관련해 한기총 소속 9개 교단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백석, 대신, 고신, 합신, 개혁, 예성, 기하성 여의도, 기하성 서대문 총회 임원들은 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한기총 정관 개정 대책 모임’을 갖고 현 정관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정관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회비 납부를 유보하고, 실행위 절차상 문제에 대해 한기총 집행부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9개 교단 임원들은 지난 7월 7일 열렸던 특별총회의 정관개정이 한국교회 앞에 내놓은 한기총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통과된 특별총회의 정관을 3개월 만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실행위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관개정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고 회원 교단 총무의 회원권 이의제기 무시, 찬반토론 없는 회의 진행, 전례 없는 흡석 사찰위원의 발언권 제치, 원로지도자 간담회가 정관개정을 위한 사전 모임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한기총 내부의 인사문제와 기금 사용,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WEA 총회를 개최하려면 한국교회 공 교단의 참여와 협력

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어떠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WEA 총회는 한국교회 공공단체의 책임 있는 교계 지도자, 교단 총무단, 실무자, 신학자, 전문위원 등의 공적 논의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지난 실행위에서 정관 개정 시도에 대해 적극적 반대를 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기총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9개 교단은 다음주 초반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감 감독회장 재선거 항소심도 “부적법”

서울고법, 신기식 목사 상대 소송 ‘절차상 위법’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3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신기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소송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절차상 위법’ 등의 1심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신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재선거 무효소송에서 “피고(기감)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권한이 없었고, 재선거권이 주관한 재선거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법원은 선거인명부, 우편투표 등을 절차상 위법 사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지난 4월 총회 결의 부존

재 확인소송에서도 신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지난해 8월 20일 제28회 총회 결의 내용이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번 항소 기각 판결에 따라 강홍복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기한 행정부원총회 청원 역시 기각한 바 있다.

원래 감리교내에는 교단 정상화를 위해 임시 감독회장 선임 후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독회장이 선출되더라도 내년 10월이면 차기 감독회장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재선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반면 전 국가감리교목회개혁연대(전감목)는 “내년 봄 연합연회를 통해 법원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감리교 내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자녀세대 공감 나누자”

‘모든 세대 기도연합집회’ 방지일, 홍민기 목사 설교

아버지와 자녀세대 간 화해와 연합을 통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모든 세대의 기도연합집회’가 11일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는 12일 새벽 6시까지 11시간 연속기도 집회로 진행된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행사 취지에 맞게 한국교회의 원로인 101세 방지일 목사가 아버지세대를 대표해 설교한다. 40세 홍민기 목사는 자녀세대를 대표해 말씀을 선포한다. 참가자들도 교회와 기관, 세대를 초월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왕성교회 총신교회 일산광림교회 예수사람들교회 서울은현교회 등 20여 교회 성도들이 참여한다. 한국대학생선교회, 원티네트워크, 한국

성서대학, 영2080, 어게인1907 회원들도 함께한다. 특히 미국의 CCM 사역자인 타미 위커와 탐 브록스가 내한, 찬양 무대를 꾸민다.

집회는 감사와 축복, 결단의 순서로 진행된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아버지세대의 삶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된다. 자녀세대는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아버지세대의 발을 씻는다. 아버지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자녀들은 이 유산을 이어갈 것을 결단한다.

집회를 준비 중인 임석중 목사는 “이전에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세대별로만 진행됐다”면서 “이번 집회는 아버지세대와 자녀세대가 서로 축복하고 하나 되는 행사라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총신대 재단이사 12명 선출 새출발

수개월 진통 끝...127명 운영의원 무기명 투표로

총신대학교(총장 정일웅)가 재단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수개월 동안 진통 끝에 4일 운영이사회의와 재단이사회를 열어 교육이사를 포함한 재단이사 12명을 선출했다. 새 재단이사장은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후에 선출된다.

서울 사당3동 총신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127명의 운영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운영이사회에서 선출된 재단이사는 지역별 안배를 원칙으로 영남 김승동 이승희 김정훈 목사, 서울총회 안영환 고영기 목사와 이완수 장로, 호남·중부는 백남선 목사와 박정하 장로 등 8명이다.

운영이사회 이후 열린 재단이사회는 학교 정관에 따라 교육이사 4명을 선출했다. 이날 참석한 8명의 재단이사는 3개 지역을 고려해 선출한 8명의 후보 가운데 정준모 한기승 김영우 유병근 목사를 선출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을 선출한 것은 현 재단이사 15명 가운데 3명을 뺀 12명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 채용, 직원 선발 및 승진 등 내부 주요 권한을 가진 재단이사를 대거 뽑는 이번 운영이사회의에 학교 안팎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300여명은 운영이사회가 열린 회의장 밖에서 재단이사장 및 재단이사회의 연임에 반대하며 교수 총원 및 승진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재단이사 진 선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운영이사들은 재단이사 선출에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이사인 옥성석 목사는 “투표 전 재단이사후보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추천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소개하는 시간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재단이사의 비중을 볼 때 너무 무리하고 졸속적”이라고 말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전송은 규제하지는 않았고도 나왔다. 운영의원인 박윤식 목사는 “중차대한 재단선임문제에 개인의 의견을 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총회에 유언비어가 많다는 주장에 힘을 잃어 결국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규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번에 교육이사로 선출된 연임의 길을 탄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학생들의 퇴진요구에 대해 “승진 탐나도 교수 총원의 문제는 이사진이 바뀌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족함이 있지만 학생들을 비롯한 안팎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최고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 금주운동본부 발대식 결의문 채택

경기 침체로 술에 의지...피해가정 늘어

[미션라이프] 경기 침체로 삶이 힘들어지면서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에 따라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6년 6만 715명이던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 환자 수는 2006년 6만 715명, 2007년 6만 6196명, 2008년 6만 8146명, 2009년 7만 3886명, 2010년 7만 4678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비도 2006년 925억원에서 2010년 1738억원으로 5년 만에 88%나 증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 23조원에 달한다. 현행법의 24.2%, 공무원행방배제의 63.3%가 주취(酒醉)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정이 늘고 음주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와 금주운동에 발맞추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는 한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대표 박우관 목사)와 손잡고 3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기독교금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범국민 금주운동’을 대

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무분별한 술 광고를 폐지하고 24시간 편의점의 술판매를 금지하며 술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알코올을 피해가정 돕기와 서명운동, 치료시설 확대 등을 범교단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알코올 중독자 재활 공동체와 치유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술 없는 금주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알코올 치유 목회자들이 초·중·고·대학과 기업체 등에서 알코올 예방 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 및 건전한 음주 문화와 관련한 홍보영화를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

술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어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며 범국민적인 금주운동과 알코올 피해 대책을 위해 나서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또 무절제하고 퇴폐적인 음주문화를 긍정하고 공영방송에서 연속극 등을 통해 방송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퇴폐와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윤리위원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라고 촉구했다. 입법기관도 알코올을 피해대책을 범으로 제정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음주 문화로 알코올을 피해를 극소화해 주길 호소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 노재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후 4:30 주일 4부예배 :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 오후 7:30 Tel. (02)525-7767, H. P. (01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 권태진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1:00 저녁 예배 : 오후 2:30 Tel. (031)937-6754-5 군포시 광정동 670-10호	금라교회  담임목사 : 김정민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 오후 7:30 www.kumra.org Tel. (82)2-490-7001,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왕우본동 340-1 (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동청 주일 1부예배 :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 수 요 예 배 :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638,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기승 주일 1부예배 :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수 요 기도 회 : 오후 7:00 새 계 기도 회 :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 오후 9:00 Tel. (82)523-9419, Fax. (8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문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 이강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장형호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 오후 7:00 주일 6부예배 : 오전 11:00, 7:00 주일 7부예배 : 오후 9:00 Tel. (031)977-8339-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산동 1670-1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병우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후 2:00 주일 3부예배 : 오후 4:30 수 요 예 배 : 오후 8:00 새 계 기도 회 : 오전 6:00(매월)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 김관한 주일 1부예배 :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 오후 1:20 새 계 기도 회 :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구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 박창운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3:00 새 계 기도 회 :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 소강석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 오후 2:30 주일 6부예배 :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0-1000, 팩스 031) 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 황광석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 오후 3:30 새 계 기도 회 : 오전 5:00 새 계 2부예배 : 오전 6:30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영등포구 뚝섬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 김영복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8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 김경곤 주일 1부예배 :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 오후 7:00 새 계 기도 회 : 오전 5:30(매월 1회) Tel. (82)2-2643-8532-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서동 7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 정경필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 오전 12:20 주일 5부예배 :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 조일재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수 요 예 배 :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4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 (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 박상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3:00 수 요 예 배 :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백(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 김성길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 새벽기도회 :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교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 이신웅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백(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 이정익 주일 1부예배 :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 오후 3:00 주일 6부예배 : 오후 3:00 Tel. (82)2-798-6579, 사백(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 조 윤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 오후 2:50 수 요 예 배 : 오후 7:30 새 계 기도 회 : 오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수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40 주일 4부예배 :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 오전 10:30/오후 7:30 수 요 예 배 : 오전 5:30(월-30/9) Tel. (055)296-4710-4, Fax. (055)29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	왕성교회  담임목사 : 길자연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Tel. (82)2-888-4913, 331-284-7204 서울시 양악구 신원동 164-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기원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수 요 예 배 : 오후 3:00 새 계 기도 회 :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137번지	주안교회  담임목사 : 나경일 주일 1부예배 :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 오전 12:00 주일 5부예배 :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 최광도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일교회  담임목사 : 주서택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 오후 2:00 수 요 예 배 : 오후 7:00 금요기도회 : 저녁 9:00 새 계 기도 회 :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총신교회  담임목사 : 박송순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 오후 1:3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교육칼럼

조석훈 목사 순교61주년 기념 추모음악예배

“그 날의 순교, 오늘의 열매”

조석훈 목사의 삶과 순교,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야기

6.25전쟁 때 순교한 조석훈 목사의 순교의 삶을 기리는 음악회가 후손들에 의해 지난 6일 서울 남대문교회에서 개최됐다.

예배는 조영택 목사(3남, 밴쿠버갈릴리 교회 원로) 사회로 설교는 남대문교회 담임 손윤탁 목사가 했으며 축도는 김창진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했다.

또한 본지 단골 필자인 조진모 목사(합동신학대 교수)는 2남 조인택 목사의 2남 이다.



조석훈 목사

게 됐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10월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북한 교인들에게는 월남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

순교를 각오한 한 그의 의지대로 집으로 돌아간 공산당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포돼 은유의 최북단에서 총살을 당했다.

그의 순교신앙을 자녀들이 계승했다. 전영경 사모는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했다. 막내 조영택 목사는 지금도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잊을 수 없다고 회상한다.

조석훈 목사는 뛰어난 외모와 강한 책임감으로 어린 나이에도 가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으며 항상 적극적인 태도와 과묵함으로 그를 대적하려 온 사람이라도

표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이번 순교 61주년 기념예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셔서 헌신시키셨으며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 때가 되며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순교의 영감과 재 헌신을 위하여: 순교자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 귀한 유산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가족 간의 유대를 위하여: 2011년 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녀 조선옥 사모의 장례식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3녀 조순산 전도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부활절의 ‘달걀 찾기’처럼 오늘날 잘못된 세상의 비신앙적인 것들(동성결혼, 마약, 술, 거짓,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저주, 탐욕 등)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도록 다양한 물건들에 이름을 붙여 찾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교적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자주 들렸다.

△순교적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런데 이제는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유원정 기자)

4남3녀 모두 목사와 사모, 전도사로 사역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회복 위해 행사마련

조석훈 목사(1905-1950)는 황해도 송화군 울리면에서 조호규씨와 정대현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정대현 씨의 신앙을 물려받아 14세 때 예수를 영접하고 1923년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재령 성경학교에 입학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후 노회 파송을 받아 전도사로 사역하며 순회 사역을 했다.

조 목사의 나라사랑은 15세 되던 해 3.1 만세운동사건에 참여했다가 체포당한 후 매를 맞는 옥살이를 하면서 확고해졌다. 일제의 신사참배는 기독교에 대한 정면대전이던 조 목사의 나라사랑은 반공 정신으로 나타나 교회를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를 앗아가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하

던 교인들이 찾아와 남한으로 피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남아있는 양들을 지키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니 목사가 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오. 제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들 속히 이곳을 떠나세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2, 3세대 후손들이 “순교의 열매”를 찬양하고 있다. 지휘는 조진모 목사.

그의 성품에 감동 받고 돌아가기도 했고 후손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찬양을 은혜롭게 잘 불러 그의 후손들 대부분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도 조진모 목사 작곡 조은아(‘하나님의 은혜’ 작사자) 작사로 할 아버지를 기리는 “순교의 열매” 신곡을 발

표하기도 했다. 후손들은 이번 순교 61주년 기념예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셔서 헌신시키셨으며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 때가 되며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

순교의 영감과 재 헌신을 위하여: 순교자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 귀한 유산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가족 간의 유대를 위하여: 2011년 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2녀 조선옥 사모의 장례식을 계기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3녀 조순산 전도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부활절의 ‘달걀 찾기’처럼 오늘날 잘못된 세상의 비신앙적인 것들(동성결혼, 마약, 술, 거짓,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저주, 탐욕 등)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도록 다양한 물건들에 이름을 붙여 찾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교적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자주 들렸다.

△순교적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자주 들렸다. 그런데 이제는 날이 갈수록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유원정 기자)

우리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영연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교육방법(Teaching Method)을 통해 이들이 발견하고 찾고 스스로 꿈을 세워 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10월은 무엇보다 종교개혁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10월31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일이 언제부터인가 ‘귀신 놀이’하는 ‘할로윈’으로 둔갑하여, 개신교회가 뜻 깊게 지내야 하는 날임이 분명하게 ‘할로윈’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종교개혁일은 지워지고 귀신 놀이 환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종교개혁에 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자들에 의해 알기 쉽게 당시 역사적 구교의 교권주의와 속죄권 판매 등 비신앙적인 교회의 부조리로부터 ‘이신칭의’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의 ‘달걀 찾기’처럼 오늘날 잘못된 세상의 비신앙적인 것들(동성결혼, 마약, 술, 거짓,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저주, 탐욕 등)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찾도록 다양한 물건들에 이름을 붙여 찾기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 (714)699-0210

국경 넘은 탈북자 현장사실

북한이 국경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탈북 봉쇄가 강화된 배후에는 북한 정권의 후계자 김정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회장은 국경지역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의 의뢰로 당시 중국인 현지 가이드와 함께 국경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에게는 총을 쏘지 않았지만, 김정일이 공식 등장한 뒤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발견시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리스 종합주석

Advertisement for Xops Bible study materials, including a stack of books and a 'NEW' badge.

2012년 달력·다이어리

Advertisement for calendars and diaries, featuring a calendar page and the website www.buycalendar.com.

Advertisement for HIS media, highlighting a projector sale with a DLP-XGA model for \$835.

Advertisement for religious products including a calendar with a religious illustration and a book titled '예수'.

Advertisement for a church shop selling religious items like vestments and lamps, with a '목사님가운' (Pastor's Robe) featured.

Large footer advertisement for HALLELUJAH BOOKS, Inc.,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New York and New Jersey locations.



굿네이버스 사무실에서 열린 세계 빈곤 아동교육 지원을 위한 100인의 첼로 음악회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음악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병희 사무국장, 칼스테이트 플러튼 음대 교봉신 교수, 김재학 실장.

세계빈곤아동돕기 100인 첼로음악회 굿네이버스USA&그린하우스파운데이션 공동 CSU 플러튼에서

전세계 빈곤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돕기 위한 100인의 첼로음악회가 남가주에서 열린다.

국제 비영리기구(NGO) 굿네이버스 USA(대표 오은주)는 오는 12일 오후 8시 오렌지카운티의 디즈니홀이라고 불리는 칼스테이트 플러튼 클라예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세계 빈곤아동교육 지원을 위한 100인의 첼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USA 이병희 사무국장은 "지난 5월 13일 작고한 세계적인 첼리스트 고 비나드 그린하우스의 뜻을 이어가고자 빈곤지역의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린하우스파운데이션, 칼스테이트 플러튼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100인의 첼로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서 연주를 선보이게 된다. 특히 100대의 첼로합주 무대는 미국에서 처음 시도될 뿐더러 전 세계적으로도 5번째로 열리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그린하우스의 수제자인 칼스테이트 플러튼 음대 첼로교수이자 본교 부학장으로 재직 중인 교봉신 교수(그린하우스파운데이션 대표)가 연주 및 총

감독을 맡았다. 100명의 첼리스트에는 첼로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부터 전문 첼리스트까지 다양한 계층과 인종으로 구성되어 화합의 선율을 선사하게 된다.

교봉신 교수는 "첼로는 가슴에 품고 연주하는 악기이기에 파스함을 전해주는 악기이다. 또한 사람의 음성과 가장 가까운 음역대를 보유하여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등의 소리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악기"라고 설명하며 "이번 공연은 5월부터 기획해 준비된 행사이다. 공연은 첼로 100대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등 4부로 나누어 협주를 하는 시간과 4중주, 15중주 등 다양하게 연주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4중주와 15중주 등의 연주자들은 매주 모여 연습했으며 100인의 합주는 2주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차이코프스키, 슈베르트, 베토벤의 곡과 스페인 춤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공연을 찾는 관객들의 마음에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전해주게 된다.

공연 티켓가격은 10달러이며 칼스테이트 플러튼 웹사이트 및 당일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323)276-0269 (박준호 기자)



라이트하우스 워십의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경배와 찬양의 밤'이 네이홀든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경배와 찬양의 밤' 라이트하우스워십, '프레이즈 퀘이크' 주제로

라이트하우스워십은 '프레이즈 퀘이크'라는 주제로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경배와 찬양의 밤 집회를 5일 저녁 7시 네이홀든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배송희 목사(서울 등대선교회 담임)와 영화배우이자 합창아티스트 양동근 씨 등이 주축이 돼 구성된 찬양밴드의 찬양인도로 시작했다. 합창 찬양으로 만든 '요한복음 3장16절', '사도신경', '이사야 61장 3절' 등의 말씀을 렘으로 다함께 부르는 등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OST이자 아가서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내가 꿈

꾸는 그곳'을 불러 잔잔한 감동을 안겨 주기도 했다. 또 '아리랑'의 가사 중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입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라는 저주의 내용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는 분은 마음 가득히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축복의 가사로 바꾼 '뉴아리랑'을 불렀다.

이날 집회는 '사도신경'을 다함께 부른 후 마쳤다. 한편 라이트하우스워십은 12일(토) 오후 6시 한인타운 내 엠팩4극장에서 'Fantastic, Fabulous, Fascinating!'이라는 주제로 라이트하우스 워십 파티 집회를 갖는다.

(박준호 기자)

선교편지

키르기스스탄 종교상황 악화... 교회 등록 거부 잇달아

지난달 30일 대선을 통해 새로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등장하면서 종교상황이 더욱 악화돼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번 대선에서 총리였던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친러 성향의 정치인으로 대선에서는 이슬람 재정을 끌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종교는 3년 전 개정된 종교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법은 모든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인 세운 교회도 3년간 활동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등록 과정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 중인 강행민 선교사가 최근 한국 국민일보에 탐바예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친러 성향의 정치인으로 대선에서는 이슬람 재정을 끌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종교는 3년 전 개정된 종교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법은 모든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인 세운 교회도 3년간 활동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등록 과정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 중인 강행민 선교사가 최근 한국 국민일보에 탐바예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친러 성향의 정치인으로 대선에서는 이슬람 재정을 끌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종교는 3년 전 개정된 종교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법은 모든 교회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인 세운 교회도 3년간 활동하도록 명시

고 있는 형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강 선교사의 교회는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종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승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종교단체의 등록을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현지 분위기이다.

강 선교사는 "정부 방침은 결국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의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특별기도회를 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일부 성도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치적 망명을 고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 한다고 강 선교사는 전했다.

브라질 '받던' 나라에서 '보내는' 나라로

과거 선교 대상 국가 중 하나였던 브라질이 선교사 파송에서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브라질 칼다스 노바스(Caldas Novas)에서 개최된 제 6회 브라질 선교 컨퍼런스(Brazilian Mission Conference)에서 다루졌다. 브라질다중문화선교회(ABMT)가 주관한 컨퍼런스에는 브라질 전역에서 2천여 명의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브라질 선교사 현황에 따르면, 오늘날 아마존 지역 파송 선교사 수를 제외하고 약 3,700명의 선교사들이 100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 주로 다른 남미 국가나 라틴계 유럽 국가,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로 향하던 브라질 선교사들은 이제 거의 모든 대륙들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파송되는 브라질 선교사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 선교 대상 국가 중 하나였던 브라질이 선교사 파송에서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브라질 칼다스 노바스(Caldas Novas)에서 개최된 제 6회 브라질 선교 컨퍼런스(Brazilian Mission Conference)에서 다루졌다. 브라질다중문화선교회(ABMT)가 주관한 컨퍼런스에는 브라질 전역에서 2천여 명의 선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브라질 선교사 현황에 따르면, 오늘날 아마존 지역 파송 선교사 수를 제외하고 약 3,700명의 선교사들이 100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 주로 다른 남미 국가나 라틴계 유럽 국가,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로 향하던 브라질 선교사들은 이제 거의 모든 대륙들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파송되는 브라질 선교사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브라질 선교사 현황에 따르면, 오늘날 아마존 지역 파송 선교사 수를 제외하고 약 3,700명의 선교사들이 100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다. 주로 다른 남미 국가나 라틴계 유럽 국가,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로 향하던 브라질 선교사들은 이제 거의 모든 대륙들에서 사역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파송되는 브라질 선교사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후반부터인데, 여기에는 제1차 로잔대회가 가져온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남미 국가 가운데서도 가톨릭 인구가 가장 많았던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개신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역시 활발한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000년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개신교인 수는 전체의 20%의 40만 명이였다.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개신교인 수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7.42%의 비율로 꾸준히 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교회 재등록 법률 발효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 24일 두 개의 새 법률을 발효하였는데,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법에 의하면 모든 등록된 교회들은 다시 정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에 준하는 교회만이 등록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엔 발표된 법률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 국제인권 단체의 대변인은 이 법이 필요 이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효된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에 관한 법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 24일 두 개의 새 법률을 발효하였는데,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 법에 의하면 모든 등록된 교회들은 다시 정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정한 새로운 기준에 준하는 교회만이 등록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엔 발표된 법률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한 국제인권 단체의 대변인은 이 법이 필요 이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효된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에 관한 법

지하는 것이 그 내용 중 하나이다.

이 조항이 악용되면 교회의 여류 수련회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의 법률 정책 연구소(Legal Policy Research Center)의 나즈굴 예르갈리예바(Nazgul Yergaliev) 소장은 종교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사회적 긴장과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다고 말했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1,575만 명의 절반을 넘는 53.7%는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 공동체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2% 정도인 191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시리아교인들, 반정부 시위 이후가 걱정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Damascus) 인근 산악 지대에 위치한 사이드나야 성모 안락(the Convent of Our Lady of Saydnaya) 교회는 1,4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온 교회이다. 최근엔 이 교회에서 이라크에서 피신을 온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로버트(Robert)라고 밝힌 한 이라크 기독교인은 테러와 핍박을 피해 이라크를 탈출해 이곳 시리아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중동을 휩쓸고 있는 반(反)정부 시위는 시리아의 정국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2011년 9월 정부군은 탱크와 기관총을 사용하여 시리아의 도시 라스탄(Rastan)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하였다.

지난 2011년 3월 중순 시리아 남부의 빈민 지역 다라아(Dara'a)에서 시작되었던 반정부 시위는 현재까지 2,600명(2011년 10월 말 현재 3천명)이 넘는 사상자와 수만 명이 체포되

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시리아에서 소수 종교 단체인 기독교 공동체는 현 정부가 몰락한 이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 무슬림이 정권을 잡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는 현 아사드(Assad) 대통령의 통치 아래 비교적 평화를 누려 왔다.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는 시리아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이들은 실제 규모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리아 기독교인 모두가 현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에서 반정부 혁명 이후 기독교인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며 아사드 대통령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면 종교간 갈등이 표출되는 내전이 일

어나거나 다수인 수니파 무슬림들이 아사드를 지지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슬람의 소수파인 알라위트(Alawite)파(派)를 믿는 아사드 대통령의 가문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종파 간의 갈등을 조장해왔다.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중동에서 소수 종교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정권이 몰락한 이후 급격히 와해 되었고,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Mubarak) 정권이 붕괴한 이후 이슬람주의자들이 부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와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중동의 나라 중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레바논에서도 15년간의 내전에서 패자의 편에 섰던 레바논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많은 시리아 국민들이 아사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잔악한 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시위대는 무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면으로 계속)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참회기도, 찬회기도, 묵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일 예배(주 찬양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일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은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 메 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60)



현실적인 이슈/영성중심 사역과 재미중심 사역의 균형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여러 회에 걸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주신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온전히 현실화시키는 사역과 재미 중심의 사역간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issue of keeping balance between Spiritual-matters-driven and entertainment-driven ministries).

유스 그룹 사역을 최선으로 다해 행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은 아마도 많은 경우 영적인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는 사역과 재미와 즐거움이 주는 역동성을 보다 강조하는 사역 사이에서 무엇이 올바른 모습인지 무엇이 섬기는 친구들에게 더욱 알맞은 사역인지 고민해왔고 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은 이상하리만치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유스 사역과 즐겁고 신나는 역동성을 추구하는 유스 사역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쳐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역자의 성향이 미국적 유스 사역과 그 프로그램들을 본받고 적용하는 것에 크게 가치를 두는 경우, 재미 중심의 유스 사역(fun-focused model of youth ministry)을 하는 경향이 많고 사역자의 성향

이들의 회심을 돕는 교육에 임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즐겁고 신나며 그 안에서 참 재미있고 기쁠 수 있는 유스 그룹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와 유스 그룹에 대한 행복한 느낌과 경감을 주며 크리스천 펠로십을 배우게 해주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긍정적인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단히 말해 재미있고 즐거운 유스 그룹은 우리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고 또 지속적으로 교회 두리안에서 거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친구들은 재미가 없는 교회에는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이며 힘든 심정을 토로하시는 많은 유스 사역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실은 저도 같은 고민을 늘 항상 하고 있는 유스 사역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나 하물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들의 회심(신앙의 형성과 영적인 성숙)을 일구어야 하는 사명을 지고 가는 유스 사역에서는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까! 그래도 사실 어느 한 쪽으로라도 우리 사역의 방향 및 성향이 지켜져 있다는 것 또한 다양한 일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어느 한 쪽은 잘하고 있다는 말 아니까요. 더 심각한 상황을 이도 저도 아니면서 양쪽 다 놓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깊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나게 지루하고 활기 없는 유스 그룹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유스그룹 모습 진단이 우선 치우친 한 쪽을 보충해서 균형 잡힌 회심의 삶으로 인도

이 한국적인 신앙의 전통과 더 가까이 닿아있고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 영적인 부분들에 중점을 두는 사역(spirits-matters-focused model of youth ministry)을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사역을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가장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무겁고 고무하여 우리 친구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교통신호를 잃게 되어서도 안 되거나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모이고 그룹에 활기가 넘치지만 지나치게 재미와 웃음을 추구하여 정말 진중해야 할 부분까지도 가볍게,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 유스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유스 사역은, 특히 우리 친구들의 회심을 돕기 위한 유스 사역은 다른 그 어떤 다른 사역보다도 진지하게 그 교육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일생을 통해 성숙해 나가는 그 영적인 신앙여행에서 재미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높은 가치의 그 무엇이 있으며, 많은 경우 우리는 보다 진중하고 진지한 통찰로 우리의 삶을 대면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 친구들에게 일깨우고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의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국의 코미디인들이 잘 쓰는 말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유스 사역 말입니다.

사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답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자신 각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그 해답은 섬기는 유스 그룹의 현재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진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살피고 진단하기만 한다면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섬기는 유스 그룹의 현재의 모습이 역동적이고 활기가 있는데 너무 재미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역자 자신이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설교를 할 때나 성경공부를 할 때도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주기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섬기는 유스 그룹의 현재의 모습이 진지하고 신실한 것은 같은데 맥이 없고 아이들이 점점 졸고 안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사역자 자신은 마치 순교를 각오한 듯이 모든 면에서 비장하고 거룩하기를 하고 아이들의 문화에는 전혀 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점검하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쪽이든 판단이 서면 그 반대편을 강조하는 쪽으로 사역의 방향을 선회하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작의적이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말입니다.

만약 어느 쪽인지 진단하는 일이 어렵고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유스 그룹을 그 그룹 밖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유스 그룹 사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우리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하나님께 속한 구원 (은1:17-2:10) 찬456장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해 물고기 배속에 던져진 요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 스올에서 부르짖었습니다(2) 무덤 혹은 지옥이란 뜻을 가진 스올에서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고기 배속 곧 징계 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면 복됩니다. 둘째,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4). 솔로몬 성전봉헌 때 드린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

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은3:1-10) 찬197장
구원받은 요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첫째, 두 번째 기회-요나에게 또 다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1-2). 니느웨에 하나님의 최후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복음중거로 수심만명이 구원받은 일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개하였습니다(3). 왕의 조서가 내려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의 변화가 선원, 백성, 왕, 대신에게 전해져 마침내 성

수 아끼시는 하나님 (은4:1-11) 찬408장
요나의 영적갈등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요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가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라고 했는데 반대방향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알려지고 부여됩니다(롬 5:5). 둘째, 육과 싸워야 합니다. 요나의 육체소욕은 고

목 찬양의 하나님 (시113:1-9) 찬101장
할렐루야 시편인 본문은 찬양에 관해 무슨 진리를 가르칩니까? 첫째, 지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1-3).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뿐 아니라 그의 다스림을 보며 찬양했습니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공간과 지극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왕이신 그를 범사에 영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4-5). 그 하나님은 낮아

금 자들이 샘플로 (시114:1-8) 찬208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역사를 생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4, 5절). 왜 찬양합니까? 첫째,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온 것은 모두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같은 세력을 단번에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넉넉한 구원을 인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여호와

토 헌신의 즐거움 (시110:1-7) 찬43장
여호와와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찬양과 함께 헌신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3절에 그 날은 언제이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그 날은 종말론 시대인 산악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 사건 곧,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날에 첫 시간을 주께 드리게 됩니다. 모세처럼 새벽이슬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양식으로 받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시90:14). 만사를 얻기 위해 40년간 매일아침 첫 시간을 주께 드린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 날은 청년의 이상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 이는 꿈을 꾸고, 종들은 예언하기 때문입니다(렘2:17-18). 이 셋은 계시를 접한 자의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가리킵니다. 헌신의 복을 누립니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압축, 불량율- 단 1% 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맡쳐 드립니다

가브리엘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펠로십 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 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렐한인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렐 한인교회, 베렐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인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엘바인 침례교회, 에브리메이교회, 예살교회, 은혜평강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율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율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율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까지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송**: 남가주 전역(\$450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전회/부흥회/행사/리츠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표지 디자인에서 패키지까지 헐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당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에상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안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링크 필라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사: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 경쟁기준 중 가장 빠른속도.
-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장률의 ILV Enterprise 사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회생의 조건

실용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A LINE IN THE SAND

A line in the Sand (모래 위에 최후의 선): 최후의 영적 배수진을 치고 연합하여 영적 승리를 외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1,200여 한인교회들과 모든 단체들이 미국 교회 주도로 이루어지는 전 민족연합기도회에 오너쉽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영적 한류를 일으켜갑시다!

미국은 우리 삶의 터전이요 사역지요 우리 자녀들이 뼈를 묻을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함께 부르짖어야 하는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나라인 미국을 위해 우리 민족이 일어설 때입니다. 장년들 뿐 아니라 대학생 종교 등학생 유년부 유치부 산모와 노인들까지 역사의 현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날에 우리도 거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LA 캘리포니아 미국의 무너져가는 도덕적 부패 회복, 영적 부흥을 위한

10만명 다민족 11/11/11 로즈 볼

연합기도회



성화장로교회(강영석목사) / 세계주빌리교회(강은덕목사) / 하나로커뮤니티교회(강일웅목사) / 한양장로교회(강일준목사) /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목사) /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강진웅목사) / 뉴호프교회(강태영목사) / 남가주사랑의교회(고석찬선임목사) / 아틀다운교회(고승희목사) / 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목사) / 예은장로교회(곽건섭목사) / 갈릴리은혜교회(구본철목사) / 세계아가페선교회(김요한목사) /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김경섭목사) / 벨리엔트 / 원로목사회 회장(김경철목사) / 사우스베이벨장로교회(김관중목사) / 나성제일장로교회(김광삼목사) / 서남교회(김광철목사) / LA사랑의교회(김기섭목사) / 예수가족교회(김남진목사) / 월튼장로교회(김도석목사) / 은혜의방주교회(김동일목사) / 남서울은혜교회(김문일목사) / 토렌스주요교회(김바울목사) / 복음장로교회(김상덕목사) / 미주서부장로교회(김선익목사) / 나성한인교회(김성민목사) / LA한인연합장로교회(김세환목사) / 감사한인교회(김영길목사) / 중부제일연합장로교회(김영대목사) / 벨리중앙장로교회(김영일목사) / 벨리제일장로교회(김원락목사) / 양의문교회(김원락목사) / 평화교회(김은목목사) / 웨스트힐장로교회(김인식목사) / 새생명아시아교회(김일형목사) / 세계비전교회(김재연목사) / 토렌스제일장로교회(김준식목사) / 글로발선교회(김지성목사) /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오목사) / 남가주순복음교회(김현민목사) / 할렐루야한인교회(김형구목사) / 토렌스한인연합장로교회(나영태목사) / 그이름교회(나형길목사)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목사) / 남가주나눔의교회(노정도목사) / 홀러튼장로교회(노진걸목사) / 한길교회(노진준목사) / 벨리한인연합장로교회(류재덕목사) / 나성영락교회(림형천목사) / 유나온교회(문병웅목사) / 한우리장로교회(문영명목사) / 나침반교회(민경업목사) / 갈보리새생명교회(민승기목사) / 충현선교회(민중기목사) / 조이힐로교회(박광철목사) / 남가주동신교회(박상목목사) / 반석교회(박상열목사) / 주님세운교회(박성규목사) /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목사) / 만민교회(박성호목사) / 벨리하나로교회(박성호목사) / 인랜드교회(박신철목사) / 남가주빛나리교회(박용덕목사) / 새소망장로교회(박정순목사) / 엘바인온누리교회(박종길목사) / 나성열린교회(박현성목사) / 동양선교회(박형은목사) / 갈보리민음교회(박형택목사) / 남가주웨슬리교회(박혜성목사) / 동성교회(박호우목사) / 만나교회(박홍길목사) / 베데스다교회(방수민목사) / 베다니한인교회(방수민목사) / 로밍장로교회(배영환목사) / 그라나다장로교회(백동훈목사) / 벨리장로교회(변영익목사) / 나성평화교회(서오석목사) / 새생명중앙교회(서종운목사) / 세리토스중앙선교회(석태운목사) / 파사디나장로교회(성현경목사) / 남가주동신교회(손병렬목사) / 베델한인교회(손인식목사) /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목사) /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송상현목사) / 미주평안교회(송정명목사) /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 삼성장로교회(신원규목사) / 갈보리선교회(심상은목사) / 월셔온누리교회(안광덕목사) /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목사) / 에버그린선교회(양수철목사) / 월셔그리스도교회(엄규서목사) / 오렌지카운티장로교회(엄영민목사) / 밴나이스연합장로교회(오경환목사)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오세호목사) / 세계소망교회(오세훈목사) / 성신장로교회(홍정영목사) / 은혜와평화교회(유상수목사) / 나성북부교회(유영기목사) / ANC온누리교회(유진소목사) / 브림장로교회(윤혁목사) / 브릿지커뮤니티교회(윤덕근목사) / 나성금관교회(윤선식목사) / 로스앤젤레스연합장로교회(윤일홍목사) / 사랑의동산교회(윤종대목사) / 가나안교회(이철목사) / 오렌지중앙성결교회(이경원목사) / 다우니장로교회(이문영목사) / 세계등대교회(이상남목사) / 연합선교회(이상복목사) / 드림교회(이성현목사) / 시티하베스트교회(이승준목사) / 한미장로교회(이은영목사) / 주시랑선교회(이재근목사) / 벨리서울교회(이정현목사) / 나성서부교회(이정현목사) / 코너스톤교회(이종용목사) / 벨리커뮤니티교회(이준우목사) / 빛과소금교회(이철영목사) / 갓스윌연합교회(이철철목사) / LA소망교회(임문택목사) / 옥스포드교회(임의치목사) / 브리지교회(장세정목사) / 새누리교회(장주영목사) / 시티하베스트교회(전두승목사) / 나성함미교회(전병주목사) / 나성교회(정동석목사) / 포도원교회(정영민목사) / 월셔연합장로교회(정영희목사) / 올림피장로교회(정정수목사) / 남가주명성교회(정해진목사) / 사우스베이선교회(조중근목사) / 큰빛교회(조현영목사) / 주님의빛교회(주혁목사) / 새생명교회(지성은목사) / 미주양곡교회(지용덕목사) / 안디옥교회(지윤성목사) /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목사) / 브니엘교회(차승원목사) / 사랑의빛선교회(최혁목사) / 또꿈사선교회(최경욱목사) / 세계선교회(최은형목사) / 로고스교회(최준호목사) /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목사) / 나성동산감리교회(한기형목사) / 은혜한인교회(한기홍목사) / 주님의교회(한인준목사) / 엘바인침례교회(한중수목사) / 벨리중앙연합장로교회(홍중걸목사) /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장로교회(황기호목사) / 돌로스교회(황의정목사)

이상은 10월30일까지 참가신청한 교회 명단입니다. 이후 신청한 교회명단은 프로그램에 참가교회로 게재하겠습니다.

일시

2011년 11월 11일 (금-베테란스 데이 공휴일) 오전 11시~저녁 9시
한인 집중참가시간: 5pm~9pm
(한인기도회 인도 6시 15분- 8시 15분까지 2시간 동안 한인 기도 인도 강사들과 순서자 담당)

장소

파사디나 로즈볼 경기장(ROSE BOWL STADIUM)
장소안내: 주소-1001 Rose Bowl Drive, Pasadena, California
● 로즈볼에 오셔서 Gate A 또는 B로 들어오시면 한인들이 주로 모이는 좌석으로 안내되고 통역과 한글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안내: 교회 버스, 밴으로 카풀해 주십시오.(주차비 10불)

참가인원

미국과 해외에서 10만 명 참가예상 (한인 한어권/영어권 10,000명)

한인기도회 인도 강사

박희민목사 / 송정명목사 / 박용덕목사 / 한기홍목사 / 진유철목사
김인식목사 / 박성규목사 / 김영길목사 / 엄영민목사 / 유영기목사
외 120여 참가교회 목사의 연합공동축도

영어로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

김춘근교수(Dr. John Kim) / 한중수목사 / 박형은목사(Rev. Jim Bob Park)
Rev. Stephen Chong / 최경욱목사 / 김성민목사

찬양인도: LA 연합찬양팀과 박종술목사

교회참여와 참가자 협조 요청 사항

- 11월 11일 교회 금요 집회를 Rose Bowl 연합기도회로 참가하기로 결정하여 전 교회(EM과 전체 교인)가 동참하도록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6일(주일) 주일예배시에 전 교인들에게 Rose Bowl 집회에 대해 광고해 주십시오. 보내 드린 포스터 부착, 전단배부, 합심기도를 해 주시고 참가교회 특별후원헌금도 부탁드립니다. (30초 광고용 동영상은 교회에서 요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150여명의 참가교회 목사님을 기도회 인도 강사와 마지막 연합축도의 강사로 모시길 원합니다.
- 대회참가비는 없으나 보안을 위해 참가자 전원은 홈페이지 www.rosebowlgathering.info 에서 출입패스를 다운로드 받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준비못하신 분들을 위해 Gate에서 출입패스를 나누어드립니다.

대회를 섬기는 단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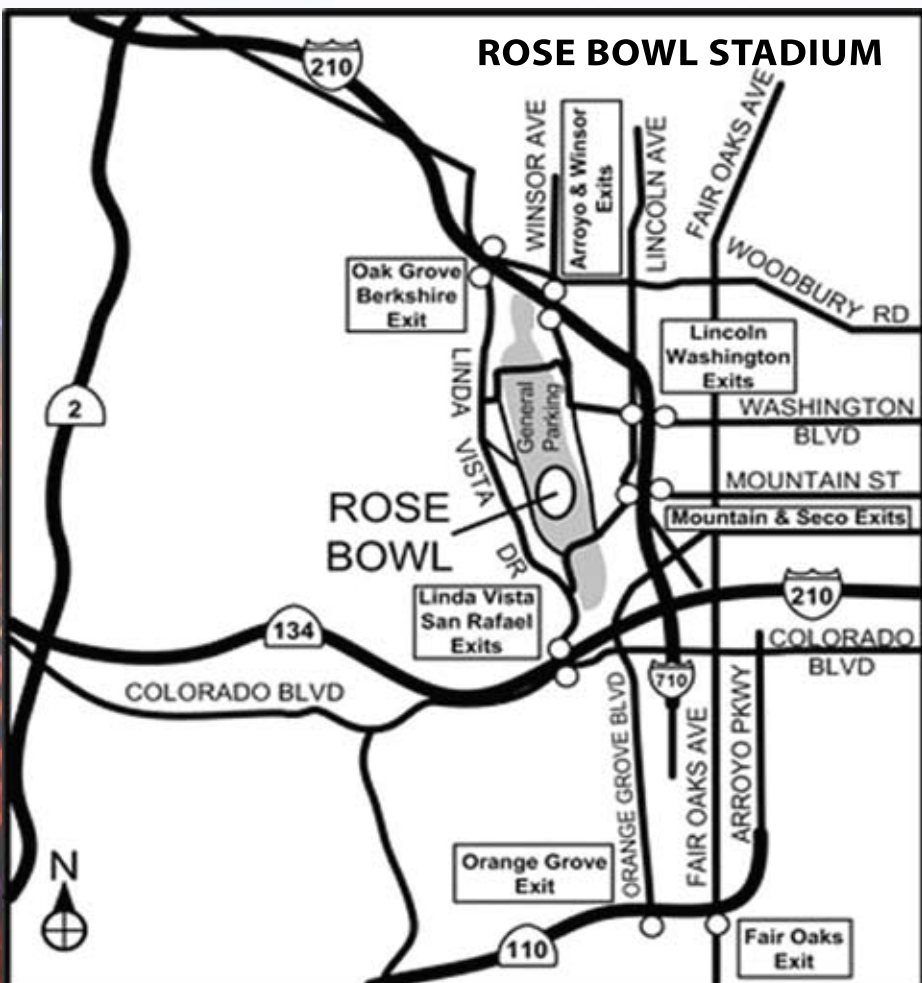
미주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KCCC USA, JAMA, 벨리, 중부, 싸우스베이, 동부, 인랜드 등 캘리포니아지역 교협
300여 명의 KCCC 학생, 교회청년 자원봉사자의 통역, 안내, 주차, 의전

연락처

11/11/11 로즈볼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대표대회장 송정명목사, 준비위원장 변영익목사, 엄영민목사, 실행위원장 이성우목사)
505 S Virgil Ave, #160,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4-5232, Fax:213-384-0055
E-Mail: laholycity@yahoo.com
Pay to: Holycity(11/11/1)

홈페이지

www.holycityusa.org



11.11.2011

213-384-5232 / 626-372-5151 www.RoseBowlGathering.info